

artv

Seongnam Cultural Foundation
www.snart.or.kr

2025 February & March
Vol. 179

특집

2025 성남아트센터 미리보기

아티스트 토크

안무가 호페쉬 섹터

인터뷰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트렌드

2025년 공연예술계 살펴보기

2025

SNART
PREVIEW



artv

2025 February & March

Vol. 1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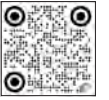
성남문화재단



C

ONTENTS

2025 February & March
Vol.179



더 좋은 <아트뷰>를 만들기 위해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립니다

SPECIAL

04 **특집**
2025 성남아트센터 미리보기

12 **미리보기**
호폐쉬 쉼터의 <꿈의 극장>

16 **아티스트 토크**
안무가 호폐쉬 쉼터

VIEW

24 **미리보기 1**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틀

26 **미리보기 2**
2025 마티네 콘서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32 **미리보기 3**
2025 성남작가조명전 I <다:바운더리>

34 **미리보기 4**
2025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

36 **미리보기 5**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 <비워지고, 채워지는>

38 **다시보기**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콜드 블러드>

42 **인터뷰**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CULTURE +

52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라이즈>

56 **트렌드**
2025년 공연예술계 살펴보기

62 **사라진 디자인**
동유럽 자동차 이야기

SEONGNAM +

72 **성남의 얼굴**
이종민, 전효성 작가

78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84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90 **3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95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96 **성남아트센터 탐구생활**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특화거리

2025 SNART PREVIEW

2025 성남아트센터 미리보기

특집
2025
성남아트센터 미리보기

미리보기
호페쉬 섹터의
〈꿈의 극장〉

아티스트 토크
안무가
호페쉬 섹터

20TH ANNIVERSARY OF SEONGNAM ARTS CENTER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Hugo Glendinning



©Marian Lenhard



©Ben Wolf

©Nikolaj Lund

2025 성남아트센터 미리보기

새로운 예술이 펼쳐지는 곳, 성남

2005년 개관 이후 지역과 세계를 보듬는 화제의 기획으로 예술의 소프트파워를 보여 준 성남아트센터가 올해 개관 20주년을 맞이한다. 세계 최정상 예술가들의 단독·화제의 공연, 긴 시간 사랑받아 온 브랜드 공연 시리즈와 기획 콘텐츠가 20년의 탄탄한 역사 위에 펼쳐진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무용의 미래, 성남에서 만나다

지난해 안무가 보티스 세바와 파 프롬 더 높 FFTN의 <블랙독BLKDOG>으로 동시대 힙합 춤의 현주소를 보여 준 성남아트센터가 올해 또 하나의 화제작을 준비했다. 세계 정상의 현대무용 안무가로 꼽히는 호페쉬 섹터Hofesh Shechter가 이끄는 호페쉬 섹터 컴퍼니의 <꿈의 극장 Theatre of Dreams>이 3월 14~15일 이틀간 성남아트센터에서 국내 초연으로 선보인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문화 올림픽아드의 일환으로 성남아트센터를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캐나다 등 유럽과 북미 주

요 극장들이 공동제작에 참여해 탄생한 화제작이다. 6월 27일 파리에서 세계 초연, 이후 런던 새들러스 웰스 등 유럽 주요 무대에서 극찬 받은 이 작품을 드디어 성남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나 자신과 사람들에게 삶의 다양한 감정을 일깨우고 질문하는 것을 좋아한다. 우리의 실제 삶에서는 막상 느낄 기회가 적지만 무대 위에서는 다양하게 다뤄질 수 있기 때문”이라던 호페쉬 섹터의 말처럼, 창의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로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작품을 통해 이전에 만나지 못한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안무가와 록 스타의



호페쉬 섹터의 <꿈의 극장> ©Tom Visser

카리스마에 영화감독의 감각까지 더한 창작자’라는 언론의 평처럼, 무용 작업뿐 아니라 영상과 영화, 연극 연출까지 장르를 넘나드는 활약으로 창작 작업의 정점에 선 섹터가 빚어낸 눈부신 예술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다.

11월 8일(토)~9일(일) 오페라하우스에서는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 댄스 컴퍼니가 선보이는 윌리엄 포사이스의 신작 그리고 <LISA>를 더블빌 무대로 만날 수 있다. 명품 주얼리 브랜드 반클리프 아펠이 후원하는 현대무용 프로젝트 ‘댄스 리플렉션’의 일환으로, 포사이스의 작품은 올해 5월 세계 초연 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최신작이다.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놓칠 수 없는 거장의 무대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는 드디어 3월 9일, 처음으로 한국 무대를 찾는다. 영국의 클래식 전문지 <그라모폰>이 ‘우리 시대의 가장 뛰어나고 매력적인 가곡 가수’라고 극찬한 게르하허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담백하고 섬세한 해석, 정제된 연주로 탁월한 무대를 선보여 왔다. 알반베르크 <보체크>, 바그너 <탄호이저>, 모차르트 <돈 조반니> <마술피리> 등 오페라 무대에서도 강렬한 인상을 남기는 한편, 2013/14 시즌에는 성악가 최초로 베를린 필 상주음악가로 활동하는 등 명실상부한 우리 시대의 바리톤이다. 특히 2017년부터 3년 동안 무려 300여 곡에 달하는 슈만의 가곡을 녹음, 독일 리트의 최고 해석자다운 이정표를 세웠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3월 9일(일) 성남

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열리는 첫 내한 리사이틀 역시 슈만에 대한 게르하허의 애정과 깊이를 증명하듯, <아이헨도르프 시에 의한 리더 크라이스, Op. 39> <다섯 개의 노래> 등 온전히 슈만의 작품으로만 꾸민다. 한 명의 예술가가 일생을 헌신해 온 슈만 가곡의 정수를 느낄 수 있는 무대라는 점에서 성악 애호가들의 후회 없는 선택이 될 것이다. 함께 내한할 피아니스트 게롤트 후버는 게르하허와 슈만 가곡 녹음은 물론 후고 볼프와 브람스 등, 수십 년 동안 다양한 레코딩과 공연으로 최상의 호흡을 맞춰 온 동반자다. 밀도 높은 음악적 호흡으로 긴 세월 무르익은 후버와 게르하허의 앙상블을 기대해도 좋다.

5월 31일(토)에는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수석지휘자 **야쿠프 흐루샤**(Jakub Hruša)가 성남을 찾는다. 일찍이 20대 시절부터 체코 출신의 거장 지휘자 이르지 벨로홀라베크의 뒤를 이을 차세대 지휘자로 꼽혀 온 흐루샤는 체코 필하모닉 수석지휘자를 거쳐 2016년부터 밤베르크 심포니를 이끌고 있으며, 올해부터는 영국 로열 오페라 음악감독으로 부임하는 등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묵직한 존재감을 더하고 있다. 이번 공연에서는 스메타나의 오페라 <두 과부> 서곡, 브루흐 바이올린 협주곡

과 브람스 교향곡 1번을 들려준다.

협연은 세계 클래식 무대에서 활약 중인 바이올리니스트 **김봄소리**가 맡는다. 김봄소리는 2021년 한국인 여성 바이올리니스트 최초로 세계적인 클래식 레이블 도이치 그라모폰과 전속 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에는 영국 BBC 프롬스 무대에 성공리에 데뷔하는 등 날로 커져 가는 스타성을 입증하고 있다. 이번 성남아트센터 무대는 김봄소리가 BBC 프롬스 무대에서 들려준 브루흐 협주곡의 감동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는 순간이 될 것이다.

6월 15일(일)에는 피아니스트 **조성진**의 리사이틀이 기다린다. 조성진은 2025년 라벨 탄생 150주년 기념 음반 발매와 더불어 올 한 해에도 세계 곳곳의 뜨거운 러브콜에 화답하고 있다. 빈 콘체르트하우스 독주회를 시작으로 2월과 3월 카네기홀, 월트 디즈니 콘서트홀 연주 등 미국과 유럽에서 투어를 진행하며, 성남아트센터 무대에서는 리스트, 베토벤, 버토크, 브람스 등 고전과 낭만을 오가는 레퍼토리로 더욱 원숙해진 예술 세계를 선보인다. 2015년 쇼팽 콩쿠르 우승 이후 어느덧 10년,

세월만큼 깊이를 더해 가는 조성진만의 음악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소프라노 **조수미**는 6월 21일(토), 자신의 이름을 건 국제 콩쿠르 수상자들과 함께하는 갈라 콘서트 <조수미 & 위너스>로 찾아온다. 젊은 성악가들의 발굴과 육성, 교류에 진심이었던 조수미의 숙원은 지난해 7월 프랑스 루아르 지방에서 열린 '제1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로 현실화되었고, 세계 47개국에서 500여 명의 성악가들이 지원하며 성황을 이뤘다. 이번 공연은 미래 오페라 무대의 주역들인 1회 콩쿠르 수상자들의 갈라 공연이다. 우승자인 중국의 신예 바리톤 지하오 리, 2위에 오른 루마니아 출신 테너 제오르제 이오누트 비르반, 3위 수상자인 테너 이기업 등이 출연한다. 조수미가 선택한 신예들의 반짝이는 재능을 확인할 수 있는 무대다.

성남 원도심에서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랜드마크인 성남아트리움은 2025년에도 '성남아트리움 클래식 시리즈'로 전문 클래식 공연장의 역할을 톡톡히 해낼 전망이다. 지난해 작곡가 시리즈로 베토벤의 음악을 탐구한 데 이어, 올해에는 모차르트의 걸작들을 집중 조명한다. 4월 10일(목) 피아니스트 **백건우**의 '백건우와 모차르트'를 시작으로 5월 15일(목) <모차르트 I>에서는 김성진이 지휘하는 국립심포니오케스트라와 바이올리니스트 **임지영**, 6월 28일(토) <모차르트 II>에서는 최희준 지휘자와 경기필하모닉 그리고 바이올리니스트 **김동현**이 들려주는 모차르트 교향곡과 바이올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와 지휘자 야쿠프 흐루샤 ©Martin Lenhard



피아니스트 조성진 ©Ben Wolf

린 협주곡을 감상할 수 있다.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바이올리니스트 스베틀린 루세브, 첼리스트 김두민은 7월 6일(일) <손열음 & 고잉홈 프로젝트>로 2025년 탄생 150주년을 맞은 라벨의 실내악을 탐구하고, 필하모닉 스트링 콰텟 베를린이 드보르자크의 현악 5중주로 9월 20일(토) 가을의 문을 연다. 피아니스트 신창용은 바흐와 슈베르트로 꾸민 리사이틀로 11월 20일(목) 성남아트리움을 찾아온다. 비올리스트 리처드 용재 오닐은 12월 20일(토) <선물> 무대로 아트리움 클래식 시리즈의 마지막을 장식할 예정이다.

삶의 마지막을 비추는 가슴 벅찬 기록

2024 영국 에든버러 페스티벌 프린지 최우수 작품상에 빛나는 연극 <러브 비온드>는 11월 28일(금)~30일(일)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에서 국내 초연으로 만날 수 있다. 치매를 앓고 있는 청각장애 노인 해리의 이야기를 통해 현재와 과거, 기억과 상실, 연결과 단절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 작품은 실제 청각장애인 배우이자 연극 제작자인 라메쉬 메이아판 Ramesh Meyyappan이 대본과 연기를 책임지며 드라마에 놀라운 생명력을 불어넣었다. 언어와의 접촉을 잃어 가며 사랑과 기억이 사라져 가는 상황 속에서도 결국은 이를 통해 우리의 삶은 의미를 지닌다는 것을 탁월한 연기와 연출로 풀어낸다. 작품은 영국 수어와 시각 언어, 구어 대화가 자막 없이 진행, 청각장애인과 청인 관객 모두에게 동등한 소통의 경험을 선사한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Jinsoo Lee

“언어를 초월하여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와 아이디어를 담은 이야기를 만든다”는 메이아판의 철학처럼, ‘시각적’인 연극 어휘와 내러티브의 확장에 집중해 온 작업의 결과를 진한 감동으로 마주할 수 있다.

이유 있는 인기, 브랜드 콘서트

올해로 20번째 시즌을 맞은 성남아트센터의 대표 브랜드 공연 <마티네 콘서트>는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라는 주제 아래 오스트리아 출신, 또 오스트리아와 인연이 깊었던 다양한 작곡가들의 작품을 소개한다. 마티네 콘서



연극 <러브 비온드>

트의 해설자로 진행과 연주 모두 진심을 담아내는 피아니스트 김태형, 오랫동안 마티네 콘서트와 함께한 수준 높은 관객들의 음악적 취향을 반영한 프로그램,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면면은 성남아트센터 마티네만의 경쟁력이다. 3월부터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에서 음악이 그려낸 오스트리아의 아름다운 풍경을 만끽할 수 있다. 관객과 평단의 호평을 받은 연극을 단돈 1만 원에 감상할 수 있는 <연극만원> 시리즈는 티켓 오픈 즉시 매진을 기록하는 성남아트센터의 인기 프로그램으로, <뜨거운 여

름>(3월 7~9일), <바스커빌: 셜록 홈즈 미스터리>(4월 11~13일), <톡톡>(5월 16~18일), <고요한, 미행>(6월 27~29일), <수상한 집주인>(8월 22~24일)까지 5편의 작품을 소개한다. 국내의 유명 발레단에서 활동 중인 무용수들이 아름다운 갈라 무대를 펼치는 <2025 발레스타즈>(7월 26~27일), 주말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야외 음악 축제 <파크 콘서트>와 <피크닉 콘서트> 그리고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뮤직 페스타>가 5월부터 9월까지 분당 중앙공원 야외공연장을 비롯한 성남 곳곳으로 시민들을 찾아갈 예정이다.

호페쉬 섹터의 <꿈의 극장>

강렬하고 짜릿하게, 꿈과 현실의 경계를 거닐다

‘현대무용계 록 스타’. 호페쉬 섹터를 부르는 말이다. 2015년 브릭스톤아카데미에서 열광하는 관객과 함께 <폴리티컬 마더(Political Mother)>를 선보이며 가장 큰 성공 중 하나를 거둔 후, 이 별명이 굳어졌다. 브릭스톤아카데미는 밥 딜런, 롤링스톤스, 콜드플레이 등이 찾았던 런던의 대표적 음악 공연장이다. 대중적 인기와 평단의 인정을 고루 거머쥔 안무가 겸 작곡가 호페쉬 섹터. 최근 영화감독으로도 성과를 얻은 육각형 예술가의 신작이 3월 14일과 15일 성남아트센터를 찾는다.

글 윤대성 월간 <댄스포럼> 편집장

호페쉬 섹터의 <꿈의 극장>은 2024년 6월 27일부터 7월 17일까지 파리시립극장에서 초연을 가진 뒤 투어 공연을 시작했다. 네덜란드, 영국, 이탈리아, 벨기에, 중국, 룩셈부르크, 독일, 호주 등에서의 공연 일정이 2025년 10월 까지 촘촘하게 들어찬 가운데, 성남아트센터에서 3월 14일과 15일 국내 관객을 만난다.

본능을 일깨우는 꿈과 무의식의 세계

<꿈의 극장>은 전화위복의 대명사다. 작곡까지 직접 하는 호페쉬 섹터에게 노트북은 한 몸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 차에 둔 노트북을 누군가 훔쳐가면서 <꿈의 극장>의 모든 음악과 안무 영상이 사라져 버렸다. 무려 4개월이나 작업했는데...! 예전 결과물을 자신이 그다지 사랑하지 않았다는 것은 나중에 깨달았지만, 생각이고 뭐고 당시엔 새롭게 만드는 것 외에 방법이 없었다고 한다.

우여곡절 끝에 탄생한 <꿈의 극장>은 지난여름 파리시립극장에서 무려 3주간 세계 초연을 가졌다. <가디언>지 평론가 린지 윈십에 따르면 공연 후 파리시립극장 앞 풍경은 상당히 이색적이었다. 극장 밖으로 나오는 섹터에게 흥분한 인파가 주목하고, 몇 사람은 <꿈의 극장> 프로그램북을 꼭 쥐고 그의 사인을 기다렸다. 현대무용계에 몇 없는 유명인사의 면모가 재현됐다. 초연을 본 후 감격에 겨운 어느 관객은 음악 스태프를 찾아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겠다”고 했다. 관객의 마음을 강하게 움직이는 작품이 된 것이다.



©Tom Visser

섹터의 작품 세계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본능’이다. 린지 윈십은 <꿈의 극장>을 “당신을 물리적으로 움직이고, 맥살을 잡고, 소용돌이 속으로 끌어당기려는 춤”이라고 표현했다. 작품은 열리고 닫히길 반복하는 ‘커튼’을 통해 무의식의 세계를 여행하며 꿈나라로 걸어 들어가는 듯한 감상을 안긴다. 관람 행위, 극장의 관습, 꿈, 기억, 창작 과정 자체 등 다양한 주제를 옮겨 다니면서 때로는 악몽 같은 파편을 만들어 내기도 한다.

변화무쌍한 춤을 견인하는 것은 넓은 스펙트럼의 음악이다. 좌석이 진동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강렬한 핑크 플로이드 스타일 비트부터 여유로운 삼바와 살사, 올드 팝 ‘I Remember’까지 매우 다채롭다. 라이브 밴드의 연주도 백미지만, 닉 드레이크의 어머니 몰리 드레이크가 만든 ‘I Remember’는 또 다른 울림을 준다. “우리가 ‘우리’라고 생각했을 때, 하지만 우리는 ‘너와 나’였다”란 그녀의 가사처럼, 공연 안에는 눈을 사로잡는 폭발적 군무뿐 아니라

홀로 스쳐 가는 외로운 존재들이 있다.

영화 같은 미장센을 만드는 톰 비서Tom Visser의 조명도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 안무가와 함께 공간의 창조주가 되어 빛을 조각하는 그는, 때로는 공기가 두꺼워지는 것 같은 감각을 안기고, 때로는 따뜻한 빨간색으로 무대를 덧칠했다가 푸르스름한 녹색으로 생명력을 앗아 가기도 한다.

춤, 음악, 영화를 섭렵한 육각형 예술가

영국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호페쉬 섹터Hofesh Shechter는 이스라엘 출신의 안무가 겸 작곡가, 영화감독이다. 예루살렘예술원을 졸업하고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바체바무용단에 들어갔지

만, 드럼과 퍼커션을 시작한 뒤로 음악 공부를 위한 프랑스 파리행을 택했다. 영국에 처음 갔을 때에도 그는 밴드에서 드럼을 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003년 첫 안무작을 기점으로 인생이 달라진다. 직접 음악까지 맡은 작품 <파편Fragments>2003을 선보인 그는 단번에 영국 신진 안무가의 산실 더플레이스The Place로부터 새로운 작품을 위촉받는다. 당시 <컬트Cult>2004는 관객 심사로 선정되는 다섯 개 작품 중 최고상을 차지했고, 그는 더플레이스 협력예술가2004-2006에 선정되며 예술계의 본격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한다.

영국 최고의 실력자 반열에 오른 건 이후 발표한 <반란Uprising>2006과 <당신들의 방에서In

Your Room>2007 덕분이다. 두 작품을 한데 묶어 투어하던 호페쉬 섹터는 후자로 영국평론가협회 최우수안무상을 받는다. 이는 그의 이름을 국경을 넘어 각인시킨 공연이기도 하다. 미국 최고령 현대무용 축제 제이콥스필로댄스페스티벌을 찾았을 때, 뉴욕타임스 무용평론가 로슬린 술카스는 “호페쉬 섹터,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는 평을 썼다.

메가 히트작 <폴리티컬 마더>2010는 드러머로 활동할 당시 록 스타가 되고 싶었다는 그의 꿈이 현대무용과 만난 대표적인 사례다. 국내에서도 각광을 받은 이 작품은 격렬한 타성과 눈부신 조명을 타고 춤의 원초적 힘을 폭발적으로 쏟아 냈다. 당시 내한 공연의 안내 방송이 “공연 중 전화기를 켜 두셔도 됩니다. 어차피 안 들리실 테니까요!”일 정도였다. 30대 중반의 청년은 이 작품을 계기로 세계적 안무가의 반열에 올랐다.

안무가의 위상은 작품을 의뢰한 무용단을 살펴보면 알 수 있다. 세계 최정상 현대무용단 ‘네덜란드댄스시어터1’부터 발레로 이름 높은 파리오페라발레단, 영국 로열발레단 등이 호페쉬 섹터가 마흔을 갓 넘긴 2010년대 중반부터 그의 기존 안무작을 수용했다. 곧이어 신작을 의뢰하며 지속적 관계를 쌓기 시작했는데, 특히 파리오페라발레단은 올 6월에도 그와 함께 전막 길이의 초연을 앞두고 있다. 섹터는 런던 공연장 새들러스 웰스의 협력예술가도 맡고 있다. 특히 영국 문화예술에 기여한 공로로 2018년 대영제국훈장 4등급OBE를

받았는데, 국내 걸그룹 블랙핑크가 2023년 받은 MBE보다 한 단계 높다. 최근에는 코로나 기간 직접 연출·안무·작곡·촬영한 <폴리티컬 마더: 더 파이널 컷>2021으로 영화감독으로의 행보 역시 확장하고 있다. 국내 월간 <댄스포럼>과의 인터뷰에서 그는 “앞으로 더 많은 영화를 만들고 싶다”는 바람을 밝혔다.

차진엽, 김예지가 몸담은 무용단

2008년 창단한 호페쉬 섹터 컴퍼니는 영국 남부 해안 도시 브라이튼에 위치한 브라이튼 돔Brighton Dome의 상주 예술단체이다. 정식 창단 전, 현대무용가 차진엽이 몸담으면서 섹터의 첫 작품 <파편> 듀엣(출연 차진엽·호페쉬 섹터)으로 일찍이 국내에 소개되기도 했다. 차진엽은 곧 한국으로 돌아와 안무 활동을 시작했지만, 또 다른 한국인 단원 김예지는 입단 10년을 넘긴 고참 단원이자 리허설 어시스턴트로 여전히 활약하고 있다. 무용단은 앞서 언급한 작품들을 비롯해 <The Art of Not Looking Back>2009 <Sun>2013 <Barbarians>2015 <Grand Finale>2017 <Double Murder>2021 등의 레퍼토리를 보유 중이다.

2018년엔 차세대 무용수로 구성된 주니어 무용단 ‘섹터II’도 생겨났다. 이들을 위한 작품은 <Show>2018 <Contemporary Dance 2.0>2022 <From England with Love>2024 등이다.

호페쉬 섹터의 <꿈의 극장>은 3월 14~15일 양일간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에서 만날 수 있다



©Todd MacDonald

안무가 호페쉬 섹터

오직
움직임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

이스라엘 출신의 예술가 호페쉬 섹터 Hofesh Shechter를 표현하는 가장 정확한 키워드는 바로 '다재다능함'이 아닐까? 세계 무대에서 각광받는 현대무용 안무가이자 장르를 넘나드는 무대 연출 그리고 음악과 영화 작업에 이르기까지, 독보적인 에너지와 다채로운 개성으로 가득한 섹터의 창작에 경계란 존재하지 않는다. 예술을 통한 공감과 연대의 정서를 빚어내는 데 무엇보다 진심인 아티스트, 호페쉬 섹터에게 <꿈의 극장>과 창작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 이번엔 성남아트센터 무대에 오르는 신작

<꿈의 극장>은 어떤 작품인가요?

<꿈의 극장>은 다양한 이미지와 생각할 거리를 가득 선사하는 매우 흥미진진한 공연입니다. 무용수 13명과 연주자 3명이 무대에 등장하고 연주자들의 라이브 음악, 녹음된 전자음, 목소리 등 다채로운 사운드의 어우러짐 속에 온갖 감정이 솟구치죠. 공연 내내 적절한 시점마다 완전히 다른 종류의 음악이 사용됩니다. 무용수들의 신체적 표현을 극대화한 역동성을 만끽할 수 있는, 에너지틱한 몸짓으로 가득한 공연이기도 해요. 무대는 세트인 동시에 무대와외의 상호작용도 있습니다. 음, 너무 많은 걸 알려 드렸네요(웃음).

—— 어떤 계기에서 탄생한 작품인지, 창작 배경도 궁금한데요.

제가 작품을 구상할 때에는 '꿈의 세계'의 여러 일면을 떠올렸어요. 잠을 자면서 꾸는 꿈만이 아니라 인생에 대한 꿈이나 소망, 무언가를 원하는 감정과 그 이유도 고민했지요. 또 문화적 요소, 우리의 욕망과 희망 사이의 연결고리도 탐구하고자 했습니다. 이 작품의 무대는 마치 인간의 두뇌나 무의식처럼 작동하면서, 무언가는 드러내고 또 다른 것은 숨기기도 해요. 무대에 깊이 빠져들수록 인간이라는 존재와 연결된 온갖 흥미롭고 깊이 있는 요소들을 발견하게 되죠.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매우 몰입감 있고 호기심을 자극하는 공연입니다. 관객 여러분이 직접 경험하셨으면 좋겠네요.





호페쉬 섹터가 참여한 영국 로열 오페라하우스 오페라 <오페와 에우리디체> ©Bill Cooper

—— 〈꿈의 극장〉은 성남아트센터를 비롯해 전 세계 주요 극장들이 공동 위촉한 작품입니다. 이렇게 많은 지원 속에 새로운 작품을 만든다는 것, 그에 따른 기대에서 오는 부담은 없었나요?

2009년부터 많은 극장들이 제 작업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냈고, 꽤 오랜 시간이 흐르는 동안 이제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가는 법을 배운 것 같습니다. 특권이었을 수도, 또 어떤 면에서는 부담일 수도 있지만 어쩌면 처음부터 운이 매우 좋았다고 생각해요. 작품의 내용은커녕 제목조차 미정인 단계에서 세계 투어가 예정되기도 했죠. 저는 그만큼 큰 신뢰 속에서 창작하고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했습니다. 말씀하셨듯 사람들의 기대와 희망은 큰 부담과 책임이 따르니까요. 다만 다른 시각에서 보면, 그런 기대가 오히려 큰 흥분과 에너지를 주기도 해요. 사람들은 흥미롭고 강력한 경험, 인간으

로서 가진 경험이 반영된 무언가를 원하고,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저의 경험을 공유하고자 합니다. 거기에는 ‘함께 만들어 간다’는 설렘과 흥분이 있고, 지극히 열린 마음과 지지받는 느낌이 가득하죠.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그저 실험하고, 자신에게 충실하고, 과정을 즐기며,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지켜보는 것뿐입니다. 작업이 잘 풀리는 날에는 그렇게 떠오른 영감으로 작업하고, 힘든 날에는 내면의 싸움을 이겨 내고 원래 품었던 생각으로 방향을 돌리려고 노력해요.

—— 당신은 안무가인 동시에 뛰어난 작곡가이기도 하죠. 이번 〈꿈의 극장〉의 음악도 직접 작곡하셨는데요, 자신의 작품을 위한 음악을 만들 수 있다는 건 어떤 의미인가요?

자신의 안무를 위해 직접 음악을 만든다는 것

은 어떤 면에서 그 세계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전체 공연의 느낌과 감정을 만들 수 있다는 점, 총체적인 경험을 전달한다는 차원에서 정말 큰 의미이자 기쁨입니다. 음악이 단순히 부수적인 요소가 아니라 공연의 일부이자 전체 경험의 절반을 차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더욱 그렇죠. 음악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작품이 주는 느낌이 무엇인지에 대한 강렬한 분위기를 조성합니다. 저는 음악과 안무가 마치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만들기를 좋아해요. 음악은 안무에, 안무는 음악에 서로 영향과 영감을 주죠. 두 가지를 각각 작업하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창작하기 때문에, 과정이 상당히 복잡하고 때론 무질서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하지만 그 혼돈 속에서 무용수와 관객, 저 자신을 위한 대단히 강렬하고 집약된 경험이 탄생합니다.

—— 이번 작품에서 조명 디자이너 톰 비서의 손길도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무대 위 움직임이 조명 디자인으로 더욱 부각되었는데요.

톰 비서는 놀라운 아티스트이자 훌륭한 조명 디자이너죠. 그와 작업하는 것은 큰 기쁨입니다. 톰에게는 강렬한 시각적 언어와 확고한 비전이 있어요. 저도 작품에 대한 아이디어와 방향성, 에너지나 분위기가 명확하기 때문에 그에 부합하는 작업을 요청하죠. 톰은 제가 원하는 느낌을 훌륭하게 구현하는 동시에 자신의 예술적 시각과 독창적 색깔을 작품에 담아냅니다. 참으로 이상적인 협업이라고 생각해요.

—— 음악을 공부했고 록 밴드의 드러머 경험도 있으시지요? 10대 시절에는 쇼팽, 바흐, 퀸, 특히 핑크 플로이드의 음악에 심취하셨다고 들었는데요, 당신의 음악적 배경에서 주류를 이루는 장르들은 무엇인가요?

여섯 살 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하면서 처음 클래식 음악을 접했어요. 대략 10년에서 12년 정도 클래식 피아노를 연주하며 음악을 공부하다, 어느 시점부터 춤에 깊이 매료되면서 한 동안 음악을 떠나 있었습니다. 이후 20대에 드럼을 배우면서 타악기에 빠졌고 더 깊이 배우고 실력을 다지기 위해 노력했죠. 클래식 음악과 타악기로 시작한 음악에 대한 탐구는 이후 저만의 소리와 음악, 소리풍경, 분위기, 전자음악까지 이어졌어요. 이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결합되어 결국 제 작품의 음악을 직접 만들게 된 거죠.

—— 당신이 안무가로, 또 배우로 참여하신 영화 〈라이즈〉는 평단과 대중 모두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또 〈폴리티컬 마더〉의 영화 버전을 제작하기도 하셨죠. 영화감독으로서의 작업은 당신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평소 스탠리 큐브릭 감독의 팬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외에 영감을 받은 영화나 감독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영화라는 매체를 사랑합니다. 어릴 때부터 좋아했고 지금도 변함없이 애정을 품고 있죠. 영화는 내러티브와 대사를 통해 전달되는 이야기와 이미지, 색채, 소리, 음악, 편집이 결합된 그야말로 경이로운 예술입니다. 저는 영화야

말로 인간이 경험하는 꿈의 상태에 가장 가까운 매체가 아닌가 해요. 영화 속 시간, 이야기, 이미지를 창작자가 완벽하게 통제할 수 있다는 점, 이야기와 이미지, 소리 사이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내는 과정도 지극히 매력적이지요. 스탠리 큐브릭 감독 외에 제가 좋아하는 감독은 크리스토퍼 놀란입니다. 그는 단순히 영화를 ‘연출’하는 것이 아니라 ‘안무’하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다양한 대상의 이미지와 흐름, 타이밍이 내러티브에 의존하기보다는 오히려 춤처럼 에너지 넘치는 경험에 가깝습니다. 그런 점에서 놀란 감독의 작품을 좋아합니다.

—— **관객 분석과 세분화, 이를 통한 소통에도 노력을 기울이고 계시죠. 관객과의 소통이 당신에게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제가 공연을 창작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어떤 방식으로든 관객과 소통하기 위해서입니다. 종교적인 표현을 빌자면 ‘삶의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나는 왜 이 세상에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누구도 명확한 해답을 내리기 어렵고 누군가는 종교적인 답변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제 삶의 관점에서 이 질문의 답은 ‘이 경험을 다른 사람들과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한 인간으로서 저의 경험을 공연, 소리, 움직임, 시각적 요소로 응축해 수천 명의 사람들과 공유하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큰 성취감이 있죠.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함께 배우고 경험하며, 모두에게 의미가 있는 무언가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관객과의 관계나 소통이 예

술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라고 생각해요. 제 예술의 본질은 사람들과 연결되고, 감정과 경험을 나누며 무언가를 느끼는 데 있으니까요. 물론 혼자 방에서 무언가를 만들거나 춤을 추는 것도 강력한 경험일 수 있지만, 무대 위에 작품을 올려서 관객과 소통하는 언어로 표현하는 일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작업입니다.

—— **오래전 인터뷰에서 “춤은 나에게 잠재적 자유다”라고 표현하셨어요. 지금도 같은 감정인가요?**

그렇다고 대답하고 싶네요. 춤은 단어나 정의가 중요하지 않아요. 오직 경험만이 중요한 장소로 들어가는 관문입니다. 그 경험을 ‘제한적’이라고 정의하든 ‘최고’ ‘최상’ ‘황홀함’이라고 정의하든 간에, 흐름에 몸을 맡기는 거죠. 그 관문을 통과해 자신의 몸과 연결되어 움직이며 ‘스스로의 경험과 감정’이라는 유일한 현실에 집중하는 순간, 우리는 자유로워집니다. 더 나은 표현이 떠오르지 않네요. 모든 걱정, 언어로 제한하는 정의, 무언가를 이해하려는 시도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오롯이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움직임의 놀라운 잠재력입니다.

—— **춤, 안무, 영화, 음악까지, 당신의 모든 창작 활동을 통해 공통적으로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무엇인가요?**

저는 제 작업이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보다 ‘경험’이 되길 바랍니다. 타인과 경험을 공유할 때, 우리는 그 감정에 자신을 투영하며 더 큰



〈오이디푸스〉 연습 현장 ©Theoldvictheatre

공감과 이해를 얻을 수 있으니까요. 관객이 공연을 바라보며 친밀하면서도 새로운 무언가를 경험하는 동시에 자신의 내면 그리고 다른 관객들과 연결된 느낌, 이 혼란스러운 세상에 함께한다는 동지애와 연대의 감정을 느꼈으면 해요. 결국 제가 전달하고 싶은 건 메시지보다 ‘감정’에 가깝겠네요.

—— **안무가, 연출가, 작곡가, 영화감독 등 당신을 설명하는 다양한 타이틀 중 단 하나로 자신을 표현한다면 어떻게 불리고 싶으신가요?**

‘세상을 사는 동안 이것저것 실험해 본 사람’ 정도면 어떨까요?

—— **이번이 성남시와 성남아트센터 첫 방문이시죠? 개인적으로 계획하신 일정도 있는지요?**

최대한 많은 고깃집을 가고 비빔밥도 잔뜩 먹

는, 정말 사랑하는 음식이라서 하루빨리 맛보고 싶네요. 시장 구경도 좋아해요. 한국과 한국의 문화, 사람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번 방문을 손꼽아 고대하고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현재 준비 중인 작품이 있다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최근 런던의 올드 빅 The Old Vic 극장과 함께 연극과 무용을 결합한 프로젝트 〈오이디푸스 Oedipus〉를 마쳤습니다. 무용수 10명과 영화 〈보헤미안 랍소디〉의 배우 라미 말렉 Rami Malek, 인디라 바르마 Indira Varma 등 여러 배우들이 함께한 작품이었는데요, 많은 걸 배우고 경험하는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6월에는 제가 작업한 파리오페라발레단의 새로운 전막 작품이 파리오페라 가르니에에서 초연 예정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프로젝트를 계획 중이라 무척 기대하고 있습니다.

2025.
3.14 - 15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Hofesh
Shechter
Company

Theatre
of
Dreams

호페쉬 쉐chter의 꿈의극장

꿈과 현실의 경계에서 펼쳐지는
춤의 감각적 파노라마

“놀랍도록 아름답고 끊임없이 창의적이다”
가디언



ARTS COUNCIL
ENGLAND

FONDATION
BNP PARIBAS

hofesh
shechter
company

성남문화재단

VIEW

미리보기 1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틀

미리보기 2

2025 마티네 콘서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미리보기 3

2025 성남작가조명전 I
〈디:바운더리〉

미리보기 4

2025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

미리보기 5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
〈비워지고, 채워지는〉

다시보기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쿨드 블러드〉

인터뷰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P R E V I E W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틀

그토록 아름다운, 슈만이라는 세계

아름다운 목소리, 내면적인 통찰력, 민첩한 표현 그리고 작곡가와 작품에 대한 존경심을 모두 갖춘 성악가는 매우 드물다. 독일 출신의 바리톤 가수 크리스티안 게르하허가 바로 그런 드문, 위대한 예술가 중 한 명이다.

글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Gregor Hohenberg

그는 어떤 무대에서도 자신을 드러내거나 카리스마로 무대를 장악하기보다는 작곡가와 청중의 중간에 선다. 작품을 쉽게 정리하거나 흥미롭게 꾸미지 않고, 자신이 발견한 작품의 다채롭고 복잡한 측면을 전해 주는 ‘객관적인’ 전달자다. 그가 침착한, 어찌 보면 다소 수줍은 태도로 무대에 올라 조금씩 청중을 음악에 몰입하도록 만드는 과정을 지켜보다 보면, 문득 ‘세계에서 가장 감동적인 가수’라는 <데일리 텔레그래프>의 찬사가 떠오른다. 그런 면에서 그의 예술이 가장 아름답게 빛나는 장르는 독일 가곡이다.

지난 20여 년 동안 가장 탁월한 가곡 해석자로 명성을 누렸지만, 게르하허는 참 독특한 성악가이기도 하다. 대단히 지성적이고 꼼꼼한 해석이지만 마치 옛 음유시인이나 마이스터징어가 그랬지 않았을까 싶을 만큼 자연스럽게 들린다. 그 누구보다도 청중의 이해와 공감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언제나 청중을 설득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해석을 제공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한다. 어찌면 그래서, 게르하허의 노래가 그토록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 것일까? 이제 서정적인 하이 바리톤으로서 가장 원숙한 경지에 도달한 그가 들려주는 노래는 위대한 화가가 단지 몇 번의 붓질로 그려 낸 걸작을 보는 듯하다. <그라모폰>이 ‘어디서나 거의 최면적인 친근함과 수십 년 동안 구축한 단일한 마음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상력이 풍부한 세계를 창조했다’고 찬사를 보낸 슈만을 노래하는 이번 성남아트센터 리사이틀은 아



피아니스트 게를트 후버 ©Marion Köll

주 특별한 무대가 되리라 믿는다.

공연의 또 다른 주인공은 피아니스트 게를트 후버다. 최근 들어 ‘반주자’보다는 ‘가곡 피아니스트’라는 명칭을 쓰는 추세인데, 후버야말로 여기에 어울리는 연주자다. 후버의 피아노 연주는 가장 좋은 의미에서 섬세함과 통제력의 예술이라고 할 만하며, 특히 30년 넘게 함께 연주한 게르하허와의 호흡은 가장 복잡한 것도 단순하게 보이게 하는 경지에 도달했다. 두 사람은 게르하허가 언젠가 표현했던, ‘시를 이해하는 해답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 복잡하게 만드는’ 슈만 가곡의 놀라운 모순과 역설을 드러내리라 기대한다.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틀

일시 3월 9일(일) 오후 5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P R E V I E W

2025 마티네 콘서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오스트리아로 떠나는 음악 여행

성남아트센터의 마티네 콘서트는 2025년에도 어김없이 계속된다. 2006년부터 시작해 스무 해째 이어 오는 성남아트센터의 대표 기획공연으로서 말 그대로 알차고 풍성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사회와 해설을 더해 기분 좋은 아침을 선사하는 마티네 콘서트는 올해 드디어 오스트리아를 주제로 음악 여행을 떠난다. 클래식 음악의 수도라고 해도 좋았던 도시 빈을 중심으로 잘츠부르크, 린츠 등에서 태어나고 활동한 음악가들과 그들의 음악을 만나 보자.

글 양창섭 음악 칼럼니스트



마티네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피아니스트 김태형 ©최재우

3월 20일 첫 공연 ‘모차르트의 빈 시대’는 오스트리아의 대표 작곡가 모차르트가 빈에서 작곡했던 작품들을 소개한다. 1786년 빈에서 초연한 오페라 <피가로의 결혼> 서곡, 그보다 두 해 전 작곡한 피아노 협주곡 17번, 그리고 교향곡 39번, 41번과 함께 모차르트 교향곡의 정수로 평가받는 교향곡 40번까지 프로그램이 화려하다. 서진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이 연주하고, 생동감 넘치는 피아노 협주곡 17번의 협연자로는 피아니스트 신창용이 나선다. 하이든 역시 오스트리아에서 태어나 활동한 고전파의 중요 작곡가다. 4월 17일 공연 ‘하이든, 아이젠슈타트에서 런던으로’에서는 하이든의 두 교향곡과 트럼펫 협주곡을 만난다. 마

티네 콘서트에 어울리는 부제를 가진 교향곡 6번 ‘아침 Le Matin’은 7번 ‘낮’, 8번 ‘저녁’과 3부작을 이루는 작품으로 일출과 소박하고 상쾌한 아침을 묘사한다. 갑작스런 포르티시모로 유명한 94번 ‘놀람’ 교향곡이나 시그널 뮤직으로 유명한 트럼펫 협주곡 모두 전 악장을 감상할 가치가 충분하다. 김천시향 상임지휘자 김성진과 성남시향이 연주하고 KBS교향악단의 수석 트럼피터 남관모가 실력을 뽐낸다. 여행 도중 린츠에 들러 환대를 받은 모차르트는 자신을 위한 음악회가 열리자 단 나흘 만에 교향곡을 작곡한다. 교향곡 36번의 부제가 ‘린츠’인 까닭이다. 단시간에 작곡한 교향곡이라기엔 너무나 훌륭하다. 1백 년쯤 후 브루크

너는 그 도시에서 오르가니스트로 활동했다. 그의 종교음악 ‘이새의 뿌리에서’는 린츠 대성당의 채플 봉헌식을 위해 작곡한 작품이고, <테 데움>은 브루크너 종교음악의 걸작으로 그의 교향곡 못지않은 감동을 자아낸다. 5월 15일 ‘린츠의 두 남자’는 부산시향의 상임지휘자 홍석원과 경기필하모닉 그리고 노이오페라 합창단과 4인의 성악가가 음악의 도시 린츠로 안내한다. 합창음악으로만 꾸며진 무대도 만난다. 6월 19일 ‘빈 대가들의 합창음악’에서는 슈베르트의 종교적, 세속적 합창음악과 함께 <겨울 나그네>를 바리톤과 합창을 위해 편곡한 버전도 듣는다. 이어지는 하이든의 합창음악은 유머

와 지혜를 들려주고, 모차르트의 노래는 오페라에서 뛰쳐나온 듯 아름답고 사랑스럽다. 한국 바로크 합창의 역사를 쓰고 있는 김선아와 콜레기움 보칼레 서울이 실력을 과시하고, <겨울 나그네>의 바리톤은 강형규가 맡는다. 동화 같은 이야기에 고귀한 이상을 좇는 이들의 모험이 펼쳐지는 <마술피리>는 다양한 스타일의 음악을 녹여낸 모차르트의 천재성이 드러나는 오페라(징슈필)로 빈에서 초연되어 당시에도 국제적으로 대성공을 거두었다. 7월 17일 공연은 <마술피리> 하이라이트를 만나는 무대다. 백승현 지휘의 코리아쿰오케스트라와 김제니, 김효종, 이상은, 김경천, 여지영 등 젊은 성악가들이 즐겁고 거룩한 여행을 떠난다.

2024년 마티네 콘서트 중 김태형과 소프라노 황수미의 무대



‘과거와 현재의 대화’라는 부제를 지닌 8월 21일 공연은 오스트리아 작곡가들의 실내악을 만나는 무대다. 아름다운 안단테 악장이 돋보이는 모차르트의 디베르티멘토 후에 듣는 시닛케 A. Schnittke의 ‘하이든풍의 모츠-아트 Moz-Art à la Haydn’는 빈에서 음악을 공부한 이답게 고전과 음악을 자신만의 방식으로 해체, 재조립한 작품이다. 슈베르트의 싱그러운 피아노 5중주 ‘송어’ 4악장 이후 만나는 그라츠 출신 작곡가 로베르트 폭스는 말리와 시벨리우스 등을 가르친 명교수였다. 그의 세레나데 3번은 흔히 ‘시씨’라고 부르는 오스트리아의 엘리자베트 황후에게 헌정한 것으로 우아하고 서정적이며, 그녀가(를) 사랑한 헝가리의 집시

선율도 들어 있다. 이지혜가 이끄는 발트 앙상블이 순도 높은 음악을 들려주며, 올해에도 마티네 콘서트 전체를 이끄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송어’에서는 건반 앞에 앉는다.

9월 18일 공연 ‘오스트리아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는 바로크부터 모차르트까지의 실내악을 만나는 시간이다. 17세기 빈 궁정의 카펠마이스터였던 슈멜처 J.H. Schmelzer의 ‘펜싱학교 Die Fechtschule’는 제목처럼 펜싱을 묘사한다. 각각 프랑스와 베네치아에서 태어나 빈에서 활동한 무파트 J. Muffat와 칼다라 A. Caldara의 실내악도 빼놓을 수 없다. 유럽을 여행하며 새로운 음악을 전파, 확산시킨 공신들이다. 하이든의 친구였던 디터스도르프의 더블베이스 협주곡도 보

바리톤 사무엘 윤



바이올리니스트 유다윤 ©Pino studio



테시니 콩쿠르 우승자 유시현의 독주로 듣고, 피날레는 언제나 좋은 <아이네 클라이네 나흐트무지크>다. 고음악 불모지에서 맹활약 중인 카메라타 안티콰 서울이 연주를 맡는다.

빈에서 태어나 활동한 ‘영원한 방랑자’ 슈베르트는 수백 곡의 가곡을 남겼다. 10월 16일 베이스바리톤 사무엘 윤이 부를 슈베르트의 가곡은 그만의 성격 연기도 곁들여질 어두운 노래들이다. 특히 3인의 화자가 등장하는 ‘마왕’이 하이라이트이겠다. 김광현이 지휘하는 경기필하모닉이 말이 필요 없는 슈베르트 미완성 교향곡과 베토벤 극부수음악 ‘에그몬트’ 서곡을 가곡의 전후로 연주한다.

‘낭만적인, 너무나 낭만적인’이라는 부제가 어울리는 늦가을 11월 20일에는 말리가 아내 알마에게 보낸 연서인 교향곡 5번 4악장 ‘아다지에도’를 듣는다. 모차르트에 버금가는 천재 코른골트가 할리우드 영화음악의 길을 연 후에 작곡한 바이올린 협주곡도 깊어 가는 가을에 딱 어울린다. 낭만주의로의 길을 낸 슈베르트의 교향곡 3번도 들을 기회가 무척 귀하다. 지휘자 최수열과 국립심포니가 연주를 맡고, 롱티보 콩쿠르 2위에 입상한 바이올리니스트 유다윤이 협연자로 나선다.

19세기 후반까지 빈을 휩쓸던 슈트라우스 일가의 왈츠와 폴카를 빼놓을 수는 없다. 합스부르크 제국의 마지막을 화려하게 수놓은 오페레타의 아리아들까지 더해지면 달달하기 그지없는 겨울날이 될 것이다. 12월 18일 ‘춤추는 빈, 왈츠와 오페레타’에서는 소프라노 박소



피아니스트 신창용 ©koiworks

영과 테너 김민석의 노래와 더불어 정한결이 지휘하는 성남시향이 흥겨운 음악을 연주하며 2025년 마지막 마티네 콘서트를 마감한다. 새로운 발견과 익숙한 즐거움이 어우러진 알찬 프로그램, 친절한 사회자, 실력과 지휘자와 악단, 다채로운 협연자 등 모든 것을 갖춘 2025 마티네 콘서트를 놓치지 마시길.

2025 마티네 콘서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일시 3월~12월 매월 셋째 주 목요일 오전 11시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문의 031-783-8000



전효성, Reproduction, 6480×3840px, 4분 42초, Video installation, 2025

P R E V I E W

2025 성남작가조명전 I <디:바운더리>

탈경계,
새로운 생성과
창조의 과정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진행되는 성남작가조명전은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중진 작가의 작품 세계를 집중 조명하고, 작가의 예술관이 세상과 적극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기획된 전시다. 올해 성남작가 조명전의 첫 번째 전시는 ‘예술과 기술’을 통해 실험적인 시도를 보여 주는 청년작가 이종민, 전효성의 <디:바운더리>로 문을 연다.

글 이수정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오늘날 우리는 수많은 경계boundary가 기술의 발달로 해체되고, 모든 것이 경계를 초월de-boundary해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hyper-connected society의 시대적 패러다임 속에 살고 있다. 이번 전시 <디:바운더리>는 ‘탈경계’라는 의미 아래 특히 미디어 세계를 둘러싼 허구와 현실, 자아와 사회 등 경계와 탈경계를 심도 있게 탐구하며, 기술-인간-사회의 상호작용을 작가의 예술적 시선으로 담아 보고자 한다.

먼저 이종민 작가는 현대사회와 기술문명의 이중성에 대한 고민을 회화·영상·설치·웹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풀어낸다. 기술의 활용뿐만 아니라 기술 자체를 주제로 인간과 기술의 관계를 다각도로 분석하고 고찰하며, 특히 사이버펑크cyberpunk와 같은 공상과학 장르의 실험적 시도를 통해 작가 특유의 위트를 담아낸다. 이번 전시에서는 작가가 그동안 진행해 온 다양한 매체 작업뿐만 아니라, 이를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 내고 압축하는 시리즈 신작을 선보인다.

전효성 작가는 미디어 환경 속 이미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로서, 그에 대한 경각심을 주제로 한 작업을 보여 준다. 작가는 미디어를 활용한 이상향의 이미지부터 복제·재생산되는 미디어 환경과 그 속에서 생산되는 정보의 인공성, 허구성에 주목한다. 우리가 접하는 정보가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시각화하고 현실에 미치는 영향을 탐구하는 작업을 통해, 작가는 무한한 미디어 환경 속에서 인간의 주체적인 판단과 비판적 시각의 경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한다.



이종민, 'The birth of a new god', 112×162cm, Oil & acrylic on canvas, 2024

이번 전시에서 만나는 이종민, 전효성 작가의 작업은 현대 기술문명에 내재된 가치들을 드러내고, 보이지 않는 경계들을 허문다. 두 작가들의 예술세계 속에서, 모호해진 경계는 고정된 영역을 벗어나는 이탈의 의미를 넘어서 새로운 생성과 창조의 과정임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2025 성남작가조명전 I <디:바운더리>를 통해 기술과 예술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경계 너머의 가능성을 경험하고, 새로운 시각과 사고를 확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2025 성남작가조명전 I <디:바운더리>

일시 2월 21일(금)~4월 27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문의 031-783-8142~9

P R E V I E W

2025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

새로운
재능을 마주하다

성남큐브미술관은 3월 14일~4월 23일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에서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을 개최한다. 저마다의 독창적인 시각과 예술적 역량을 담아낸 이번 전시를 통해, 장애예술의 새로운 가치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글 조한별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권순옥, 우리가 사는 아름다운 세상 1,
Mixed media on canvas, 130.3×162.2cm, 2024

최봄이, 나뭇잎과 꽃입니다,
acrylic on canvas, 80.3×116.8cm, 2023

김태영, 꽃밭에 간 동물의 왕 사자,
acrylic on canvas, 90.9×72.7cm, 2024

2023년 12월, 장애예술인의 창작 및 발표 기회를 확대하고 예술활동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¹⁾이 일부 개정되었다. 주된 개정 내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의 범위,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 정기적 실시 주기와 범위, 실시 시기이다. 이에 따라 성남큐브미술관 역시 다양한 전시시기획을 통해 성남장애예술인 발굴과 이들의 창작생태계 활성화를 통해 문화적 다양성을 확대하고,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할 예정이다.

그 일환으로, 3월 14일부터 4월 23일까지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은 장애예술인의 독창적인 시각과 예술적 역량을 선보이는 자리이다. 제목에서 살펴볼 수 있듯이, 장애disability를 단순히 극복의 대상이나 한계로 바라보는 기존의 시각에서 벗어나 장애예술인 개인의 고유한 능력ability에 주목하여, 이를 예술로 승화한 작품들을 통해 이해와 공감의 폭을 넓히고 모두가 동등하게 살아가는 세상의 가능성을 열고자 한다. 10대에서 50대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참여 작가 10인(권순옥·김태영·박규현·송진현·윤동규·이도원·이마로·이찬영·최봄이·황진호)이 이번 전시에서 저마다의 고유한 표현 방식과 감각을 담아낸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장애예술인의 작업은 개인의 신체적·인지적 차이를 반영하면서도 독창적인 미적 언어와

예술적 탐구를 보여 준다. 이들은 전통적인 미술의 규칙을 따르기보다 자신만의 조형언어를 구축하여 개인의 예술세계를 만들어 나가는 데, 이러한 특징은 장애예술인이 가진 ‘또 다른 능력’을 드러내며 기존 미술계에 새로운 시각과 가치를 제공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이번 전시 역시 장애예술인의 독창적인 시각과 예술적 탐구를 통해 장애를 새로운 가능성으로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다. 또한 전시 관람객들의 편의를 위해 시각장애인용 오디오가이드와 쉬운 글쓰기 기반의 인쇄물 제작, 청각장애인용 온라인 전시영상 제작 등 다양한 접근성 지원을 준비, 누구나 온전히 전시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각기 다른 표현 방식으로 빚어낸 작품들은 예술의 경계를 확장하며, 공감과 소통을 이끄는 창이 된다.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을 통해 예술이 지닌 포용성과 다양성의 가치를 함께 나누는 자리가 되기를 소망한다.

1. 「문화예술진흥법」 제15조의2(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지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문화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시설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하여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호에 따른 장애예술인의 공연·전시 등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025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

일시 3월 14일(금)~4월 23일(수)

장소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문의 031-783-8142~9

P R E V I E W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

〈비워지고, 채워지는〉

삶과 기억의 틈새를
새롭게 포착하다

성남큐브미술관은 2월 28일~12월 21일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 〈비워지고, 채워지는〉을 개최한다. 미술관 소장품들을 하나의 주제로 엮어 기획한 이번 전시는 지난해 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공개하고, 소장품 수집 맥락의 긴 호흡을 다지고자 마련되었다.

글 김태은 성남문화재단 전시기획부

인간과 기계, 현실과 가상이 혼재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낡은 것을 새로운 것으로 채워 간다. 개인의 경험과 기억 또한 빠르게 순환하며, 지속적으로 무언가를 삭제하고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이번 전시는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탐구하고 삶을 재조명한 작업을 선보인다.

임남진은 개인과 사회의 유기적인 관계 속 단면을 일상의 모습으로 그려 낸다. 일상을 사유하며 삶을 시적으로 형상화한 〈적요〉는 깊이 있는 색감과 절제된 구성을 바탕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자신만의 시각 언어로 표현한다. 김민호는 다양한 장소와 시간을 다층적으로 쌓아 가며 하나의 이미지로 재구성한다. 작품 〈도시를 흐르다_롯데월드타워〉는 시간의 변화를 다각적으로 기록하며, 흔들리는 이미지들의 흔적을 통해 관람자마다 다른 장면을 포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 견고하게 구성된 김형욱의 작업은 정면을 바라본 풍경의 단편들을 자

연스럽게 이어 낸 것이다. 정선 화암면의 풍경을 단위면적으로 분해하고 재구성한 〈화암면〉은 동일한 장면도 보는 이의 경험과 해석에 따라 다르게 인식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강승혜는 현실과 상상이 맞닿는 모호한 경계를 시각적 대비로 표현한다. 자연에 대한 동경을 시각화한 〈여름날 오후〉에서 아이와 동물은 현실과 비현실을 연결하는 존재로 등장해 상상의 공간을 확장한다. 박경의 〈하얏티의 관객〉은 부산 하얏트호텔에서 만난 관객들의 색채 선호도를 바탕으로, 그들의 인상을 색의 흐름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작가는 선과 색에 장소와 시간이 축적된 기억을 반영하여 추상적 형태로 재구성했다.

임철민은 자신의 특정 경험을 오브제로, 특정 지역의 풍경을 수묵 기법으로 표현한다. 〈중점〉은 버스를 타고 귀가하던 중 잠이 들어 중점에 도착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새벽의 공간이 지닌 공허한 분위기를 수묵화로 담아냈다. 신서윤은 인생의 불안감과 맞닿은 부분들을 가상의 공간으로 표현한다. 미하엘 엔데의 『끝없는 이야기』에서 영감을 받은 〈기둥의 숲〉은 소리와 언어의 불확실성이 불러오는 감각적 불안을 시각화했다. 권력화된 '문자'를 파괴하면서 언어를 예술의 도구로 작동시키는 지희 김의 〈어제〉는 영국 유학 시절 느낀 언어 장벽으로 시작된 '북 드로잉 프로젝트'로, '책'을 새로운 창작의 공간으로 재구성하며 내밀한 기억과 연결한다. 김여운의 〈클레오파트라와 안토니〉는 현대사회의 고정된 기준을 넘



박근주, yellow shadow, 102x127cm, 피그먼트 프린트, 2023

어서는 생명력과 개성의 표현 속에 이미지와 잉 시대 속 존재의 본질에 대한 사유를 담아 내고, 사진을 회화적으로 표현하는 박근주의 〈yellow shadow〉는 일상 공간을 추상적으로 구성해 착시적 경험을 선사한다. 김래현은 자아를 표현하는 가장 함축적인 공간으로서 '집'의 의미를 탐구한다. 작품 〈그곳에 가면〉은 인터뷰를 통해 수집한 이야기를 바탕으로 기억과 공간, 관계의 깊이를 시각적으로 풀어내며, '집'이라는 공간 안에서 커져이 쌓아 올린 현대인의 초상을 은유적으로 표현한다. 끊임없이 비워지고 채워지는 현실 속에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유한한 시간과 무한한 상상이 교차하는 순간을 포착하는 이번 전시를 통해, 스스로를 다시 마주하고 삶의 의미를 모색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 〈비워지고, 채워지는〉

일시 2월 28일(금)~12월 21일(일)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문의 031-783-8142~9



김래현, 그곳에 가면, 90.9x60.6cm, 한지에 흑연과 채색, 2022

R E V I E W

하이브리드 퍼포먼스 <콜드 블러드>

짧은 순간들이
만들어 낸 긴 여운

2024년 12월 13일, 14일 |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대부분의 공연에서는 막이 오르기 전, 이미 세팅된 무대 세트와 소품들이 앞으로 펼쳐질 공연에 대한 대강의 분위기를 상상하게 만들곤 한다. 하지만 <콜드 블러드>는 어떤 무대가 펼쳐질지 조금도 예측할 수가 없었다. 텅 빈 무대 위에는 커다란 스크린과 이동식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을 뿐 세트나 소품도 찾아볼 수 없었고, 진행요원처럼 새까만 옷을 입은 창작진만이 좌우로 바빠 움직이고 있었다. 이윽고 암전이 시작되자 예상을 뛰어넘는 풍경이 펼쳐지기 시작했다. 무대 위 카메라가 돌아가기 시작하고 정교한 미니어처와 인형, 조명과 소품이 만들어 내는 작은 세계가 카메라에 의해 새로운 생명을 얻은 듯 스크린에 비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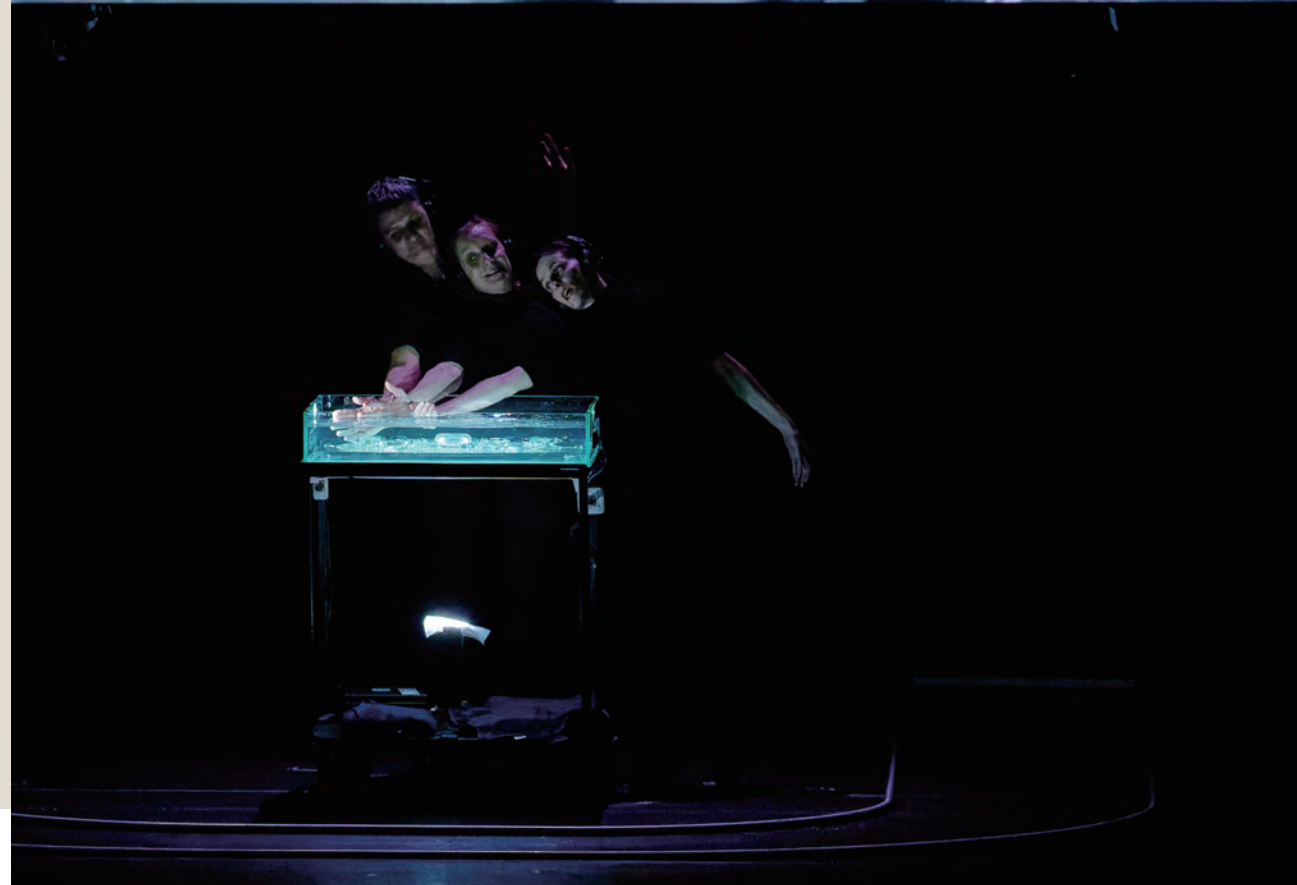
글 김주연 연극평론가 | 사진 최재우

<콜드 블러드>는 한 편의 일회성 영화와도 같은 공연이다. 무대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것들이 카메라에 의해 실시간으로 촬영되어 스크린에 투사된다. 하지만 필름으로 남아 언제든지 돌려 볼 수 있는 일반적인 영화와 달리 이 작품은 오직 공연 시간 동안만 촬영될 뿐, 막이 내리면 곧바로 흔적도 없이 사라진다. 유일한 기록 장치는 지난 12월 13일과 14일, 성남아트센터 오페라극장에 모여 현장에서 무대를 지켜본 관객들의 기억뿐이다.

75분의 길지 않은 공연이지만 매 장면 눈을 떼 수 없게 만드는 무대 위 풍경, 한순간도 쉬지 않고 움직이는 창작진의 일사불란한 움직임 그리고 죽음의 문턱에서 다양한 감각으로 삶을 환기시킨 공연의 여운은 꽤 오래 지속되었다. 실제로 13일 공연이 끝나고 진행된 관객과의 대화에서는 “이 공연을 보고 집에 돌아가면서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다” “이 특별한 영화는 인생에서 딱 한 번만 볼 수 있다는 생각에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숨을 꼭 참으면서 봤다”는 관객들의 생생한 감상이 이어졌고, 이에 창작진 또한 깊은 감사와 감동을 표시하면서 화기에애한 대화가 이어지기도 했다.

손가락으로 빚어내는 고독과 절망, 사랑

비행기 사고로 시작되는 첫 장면부터 우주 비행사의 죽음으로 마무리되는 마지막 에피소드까지 <콜드 블러드>는 7개의 각기 다른 죽음의 순간을 다루고 있다. 죽음의 시간도, 공간도, 형태도, 느낌도 다 다르지만, 7개의 죽음은





모두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온 죽음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며, 갑작스런 죽음 앞에서 각 인물은 소중했던 이의 살결이나 그리운 순간의 향기 등 오감으로 새겨진 감각을 떠올리며 삶을 추억한다. 장면장면 스크린에 펼쳐지는 삶의 순간들은 매우 개별적인 기억이면서도 보편적인 향수를 자아내는 것들이어서, 보는 내내 한동안 잊고 있었던 과거의 추억들이 선명하게 살아나는 듯한 체험을 할 수 있었다. 안무가 미셸 안느 드 메이가 안무와 실연을 맡

아 선보인 손과 손가락 안무는 마치 살아 있는 인물처럼, 때로는 그 이상으로 섬세한 감정의 결을 살려 내면서 고독과 절망, 그리움 같은 감정들을 생생하게 전달했다. 관객과의 대화에서 그녀는 이러한 손가락 안무가 특별한 감정을 전할 수 있는 것은 손가락의 정교한 움직임 뿐만 아니라 세트, 미니어처, 음악과 음향 그리고 내레이션 등 무대 위 다양한 요소들이 손가락과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의 의미망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면서 이 공연이 여

러 예술가들의 공동 창작임을 다시 한번 강조하기도 했다. 또한 <콜드 블러드>는 전 세계에서 공연할 때마다 그 나라의 언어로 내레이션을 새로 녹음하는데, 이번 한국 공연의 녹음을 맡아 준 유지태 배우의 음성이 작품의 의미를 더욱 깊고 아름답게 전달했다는 점을 덧붙였다. 실제로 유지태 배우는 이들 창작진과 남다른 인연이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닌데, 2014년 첫 내한 공연이었던 <키스 앤 크라이>에서도 작품의 내레이션을 맡은 바 있으며, 이번 공

연에서는 낮고 깊은 목소리로 낭독하는 내레이션이 끝나자마자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영화 <올드 보이>의 OST 중 '우진(극중 유지태 배우가 열연했던 역할)의 테마'가 공연의 대미를 장식하며 진한 여운을 남겼다. 비장하면서도 애달픈 멜로디를 배경으로 환한 프리즘 속에 펼쳐진 만화경 같은 손가락 안무는 그 자체로 다채로운 감정을 꼬집어내면서, 오로지 순간으로만 존재하기에 아름다우면서도 슬픈 우리 삶을 관객 각자의 기억 속에 각인시켰다.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음악과 언어를 엮어 내는, 우리 시대의 음유시인

크리스티안 게르하허는 무대 위에서나, 혹은 무대 밖에서나 한결같이 진지하고 사려 깊은 사람인 듯하다. 그가 구사하는 언어는 깊고 오랜 숙고를 거쳤으며, 그 어떤 주제도 얼버무리거나 에두르지 않고 핵심을 짚어 낸다. 사회 문제에 관해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하며, 음악과 사회에 관한 통찰력을 담은 책의 저자이기도 하다. 내한 연주회를 앞두고 진행한 서면 인터뷰에서도 게르하허는 성실하고 꼼꼼하게 대가수가 바라보는 세상과 음악을 전해 주었다.

글 이준형 음악 칼럼니스트



©Clive Barda

—— 우선 내한 연주회를 환영합니다. 오랜 세월
월에 걸친 헌신을 통해서 300여 곡에 달하는 가곡
전곡을 녹음한 슈만 프로그램이라니 더욱 반갑네
요. 대학생 시절 뮌헨에서 헤르만 프라이Hermann
Prey와 볼프강 자발리슈가 연주하는 <시인의 사랑>
을 들으면서 처음 슈만 가곡을 접했다는 인터뷰를
읽은 적이 있는데요, 슈만과 이번 프로그램에 관한
열정과 이해를 좀 나누어 주실 수 있을까요? <리더
크라이스>는 아주 유명한 작품입니다만 다른 작품,
특히 후기작은 상대적으로 덜 알려졌으니까요.

제 생각에 슈만 가곡은 방대한 독일 가곡 레
퍼토리에서 가장 위대한 업적 중 하나이며, 이
후 현대까지 많은 가곡 작곡가에게 가장 중요
한 영감을 준 존재라고 봅니다. 게를트와 저
는 슈만의 급진적인 미학을 사랑합니다. 복잡
하고 모호한 시를 묘사적이거나 서술적, 혹은
오락 지향적이기도 않게 음악적으로 ‘번역’하
는 방식을 통해, 텍스트와 음악을 추상적으로
결합하지요. 예를 들면, 그의 후기 가곡집 중
하나인 작품번호 90번(레나우 시에 의한 여
섯 개의 노래와 레퀴엠)은 그런 예술적 자유
를 매우 세련된 형태로 담았습니다. 슈만의 여
러 가곡집은 가운데에 위치한 노래를 중심으
로 배열한 경우가 많은데, 여기서는 다섯 개
(2~6곡)의 노래가 하나의 틀을 이룹니다. 첫
곡(레나우가 쓴 대규모 파우스트 시집에서 가
져왔습니다)은 단순하고 거의 따분하게 시작
하지만 첫 연이 거의 변화 없이, 하지만 끝보
기에는 별다른 동기도 없이 갑작스러운 피아
니시모로 되풀이되면서 다소 갑작스럽고 혼란

스러운 감정이 생겨나지요. 이 구조의 다른 쪽
끝은 극도로 어두운 이 가곡집을 마무리하는
‘레퀴엠’으로, 더없이 풍부한 형식과 내용이
결합하면서 강렬한 육체적 힘과 관능이 만들
어집니다. 이 두 노래 사이에는 두 번째와 세
번째 노래 그리고 더욱 강렬한 다섯 번째와 여
섯 번째 노래가 조합을 이루어 비할 데 없는
감정의 추락과 활력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다
시 그 가운데에 있는 가곡집의 중심이 네 번
째 노래 ‘목장 아가씨Die Sennin’로, 여기서 삶의
다른 한쪽으로서의 죽음은 거의 희극적일 정
도로 무심하게, 그럼으로써 냉소적이고 허무
주의적인 방식으로 상대화됩니다. 이 가곡집
은 아주 어두운 시를 더욱 어두운 음악으로
다시 배열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언젠가 “노래는 영적인 그 무엇을 이해하
려는 육체적인 노력이다”라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가곡 리사이틀이 당신의 예술을 드러
내는 궁극적인 무대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어떤 관념을 감각적으로 실현한
다는 느낌은 가곡 리사이틀에서 가장 잘 실현
되는 듯합니다. 제 경험으로는 그렇습니다.

—— 저는 당신이 지극히 수사적인 표현으로 노
래를 통해서 언어를 제시하는, 일종의 ‘말하는 가
수’라는 점에 항상 깊은 인상을 받습니다. 음악과
언어를 함께 엮어 내는 자신만의 방식은 무엇인지,
목소리의 ‘색채’를 어떻게 만들어 내는지 말씀해 주
시겠습니까?

시 형식을 통한 언어는 가곡의 기초를 이루는 예술로, 대체로 거의 이해할 수 없는, 때론 불가사의한 예술적 의지를 표현합니다. 그런 면에서 가곡은 오페라나 오라토리오보다 덜 구체적인, 관념적인 형식의 예술입니다. 복잡한 가사를 이해하는 것이 (가곡의) 목적이 될 수는 없지만, 불분명한 발음으로 인한 혼란이 없도록 노력할 수는 있죠. 그렇게 고유한 의미의 음향을 만들어 내고 청중이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제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청중에게 이를 가능한 한 간결하게 전달하는 과정에서 ‘노래의 채색’은 꼭 필요한 해석의 도구지만, 이런 ‘의미의 색채’를 가사에 있는 모음의 색깔과 뒤섞거나 혼동해서는 안 됩니다. 모음의 색깔은 변하지 않기 때문이죠.

—— 당신의 연주, 특히 가곡 리사이틀에서 청중은 아주 중요한, 근본적인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심지어 “청중은 해석의 공동체와 같다”고 하신 적이 있지요.

그 말은 연주자와 청중이 예술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한다는 뜻입니다. 가곡 리사이틀에는 오페라 극장의 프로시니엄(proscenium)(커튼 앞에 있는 무대의 앞부분) 같은 것이 없습니다. 무대의 환상과 청중 사이 일종의 장벽인 프로시니엄은 줄거리의 의미를 일화해서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그렇게 모든 청중이 ‘적어도 비슷하게’ 이해하게 됩니다. 반면 가곡 리사이틀 배치는 그와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공간에서 다소 추상적인 예

술 작품을 접하지요. 객석의 청중은 시 그리고 시를 음악으로 표현하는 가곡을 자기만의 관점과 미묘하게 다른 ‘앵글’을 통해서 이해합니다. 연주자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청중과 같은 공간에서, 자기가 일정한 형태로 전달하는 예술 작품을 그들과 마찬가지로 그저 어렵것이 감지할 따름이지요. 말하자면, 가곡에 관한 분명한 견해를 전달하기보다는 수많은 해석의 가능성이 만들어지는 예술과 정면으로 맞서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아마도 한국에서 만날 청중 상당수는 독일어를 이해하지 못할 겁니다. 물론 자막이 도움이 되겠지만, 이런 상황이 해석이나 연주의 변화를 불러오는지 궁금합니다.

그러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매우 미묘하고 추상적인 예술 작품, 다양한 방식의 이해를 통해 아름답게 빛나는 이 훌륭한 예술 장르에서 자칫 해석의 폭을 좁히거나 진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이지요. 연주자는 가사 그리고 가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들어진 음악이 결합하면서 빚어낸 독자적인 표현 능력을 신뢰해야만 합니다.

—— 이번 연주회에 피아니스트 게롤트 후버 Gerold Huber와 함께 오시지요? 두 분은 같은 도시 출신이고 친구이자, 함께 공부하고 30년 넘게 연주한 평생의 예술적 동반자인데요, 두 분의 우정과 협력 관계에 관해 듣고 싶습니다.

아내와 결혼하고 가정을 이룬 걸 제외하면, 게

고유한 의미의 음향을 만들어 내고 청중이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제 작업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롤트와의 협력은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실이자 선물입니다. 다른 연주자를 존중하지만, 게롤트야말로 우리 시대의 가장 위대한 가곡 피아니스트라고 감히 말하고 싶네요. 우리 두 사람은 가곡에 관해 다르게 접근합니다. 게롤트가 순수한 음악가로서 접근한다면, 학문적인 음악가가 아닌 저는 그보다 좀 더 가사에서 접근한다고나 할까요? 특히 리듬에 관한 문제에서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의 인도를 따릅니다. 대학교에 들어가면서 처음 슈만의 〈시인의 사랑〉으로 함께 연주를 시작한 지도 벌써 36년이 넘었네요. 이제 우리의 리허설 과정은 아주 효율적입니다. 리듬을 똑같이 맞추는 데 신경 쓰거나 과도한 의견 교환 없이 합리적으로 접근하고, 무대에서 서로를 방해하지 않으면서도 각자의 아이디어를 자유롭게 펼칠 수 있으니까요.

—— 당신은 자연스러운 표현과 지적인 해석을 결합한 독특한 예술가입니다. 자신이 독학을 통해 탄생한 예술가라고 생각하시나요? 또 영감이나 영향을 받으신 성악가들이 있는지요?



대학에서는 의학과 성악을 동시에 공부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성악가 경력을 위해 개인적인 방법을 찾아야만 했죠. 긍정과 부정 측면이 모두 존재했는데, 스스로 예술적인 비전을 계발하고 실현해야만 했다는 점에서는 일부 독학했다고 할 수 있겠네요. 하지만 사실 ‘독학’은 예술가들에게 흔한 마음가짐입니다. 자기 자신을 가르치지 않고서는 예술가의 삶을 살 수 없기 때문이지요. 그렇지만 저는 동시에 피셔디스카우와 그가 남긴 유산의 추종자라고 생각합니다. 피셔디스카우는 가곡 레퍼토리를 표현하는 방식에서 더 은유적이고 명상적인 스타일을 ‘발명’했습니다. 그리고 오랫동안

동안 유희적이거나 심지어 개인적인 방식으로 다루어졌던 이 복잡한 장르에 청중이 지성적으로 접근하는 태도를 갖추도록 만들었지요. 그 밖에 다른 우상은 헤르만 프라이, 프리츠 분덜리히Fritz Wunderlich, 호세 반 담José van Dam을 꼽을 수 있겠네요.

—— 팬데믹 이후 음악계에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클래식 음악 연주회, 특히 가곡 리사이틀의 미래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연주하는 예술의 미래가 아주 밝지는 않은 듯해서 걱정스럽긴 합니다. 그래도 이런 훌륭한 장르, 클래식 음악에서 얻는 모든 기회와 즐거움에 감사하는 마음이지요. 이처럼 고도로 정제된 예술 형식이 금세 사라지리라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유럽, 특히 독일에서 클래식 음악 교육은 점점 빈약해지고 있습니다. 예술 교육이야말로 가곡처럼 문학과 음악, 많은 역사적 의미를 담은 복잡한 예술 형식의 이해를 위해 정말 중요한 기반인데 말이지요.

—— 앞으로의 연주와 계획을 알려 주실 수 있을까요?

저와 게롤트는 이번 시즌에 서로 다른 네 개의 슈만 프로그램을 연주하는데, 그중 하나는 소프라노 율리아 클라이터Julia Kleiter와 함께합니다. 또 브람스 가곡으로만 꾸민 리사이틀 상황 녹음이 5월 25일에 발매되죠. 비올리스트 타베아 치머만Tabea Zimmermann과 함께하는 리사이틀에서는 브람스와 로베르트 폭스Robert



피아니스트 게롤트 후버 ©Marion Köll

Fuchs, 볼프강 림Wolfgang Rihm, 오토마르 쇠크Othmar Schoeck 등의 작품을 연주합니다. 그 밖에 슈베르티아데, 위그모어홀, 뮌헨 오페라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페스티벌, 잘츠부르크 부활절 페스티벌, 도쿄 봄 페스티벌 등에서 오페라 <파르지팔>과 <시몬 보카네그라>, 오라토리오 <엘리아>, 콘서트 형식으로 상연하는 슈만의 <괴테 파우스트의 장면들>, 브람스 <독일 레퀴엠>, 말러, 볼프, 슈베르트, 베버, 슈만, 알폰스 디펜브로크Alphons Diepenbrock의 관현악 가곡과 아리아를 연주하지요. 내년 시즌에는 게롤트와 제가 만든 소규모 축제인 '가곡 주간Liedwoche'의 네 번째 시즌을 엘마우 성Schloss Elmau에서 개최하면서 슈베르트 가곡을 모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오페라 무대에서는 파리에 <피가로의 결혼>의 백작을 노래하고 잘츠부르크에서는 <라인의 황금>의 보탄, 취리히에서는 <탄호이저>의 볼프람을 노래할 예정입니다.

BARITONE CHRISTIAN GERHAHER
GEROLD HUBER PIANO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리사이틀

음유시인, 슈만을 노래하다.

로베르트 슈만 R. Schumann

<다섯 개의 노래> ● <아이헨도르프 시에 의한 리더크라이스> op. 39 ● <세 개의 노래> op. 83
<로망스와 발라드 3집> op. 53 ● <레나우 시에 의한 여섯 개의 노래와 레퀴엠>

2025년 3월 9일(일) 오후5시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 Gregor Hohenberg / Sony Music Entertainment

티켓 R 8만원 S 6만원 A 4만원 ● 예매 1544-8117 ● 문의 031-783-8000

성남문화재단

2025 연극만원 시리즈
서로의 빛



바스커빌
: 설록홈즈 미스터리
4.11~13

설록홈즈와 왓슨박사의
코믹 콤비 플레이!

뜨거운 여름
3.7~9

꿈과 사랑과 열정의
고리를 찾아가는
이야기!

톡톡
5.16~18

6명 강박환자들의
좌충우돌
그룹치료 코미디!

고요한, 미행
6.27~29

감옥에 갇혀있던
15년간의 이야기
이제 세상 밖으로
나옵니다!

수상한 집주인
8.22~24

거짓말에서 시작된
아이러니와 위트로 짜여진
힐링 코미디가 온다!

滿員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 전석 10,000원

금 19:30 | 토 14:00, 18:00 | 일 14:00 | 문의 031-783-8000 |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CULTURE +

공연장 옆 영화관
영화 <라이즈>

트렌드
2025년 공연예술계
살펴보기

사라진 디자인
동유럽 자동차 이야기

영화 <라이즈>

넘어지면 일어나야 한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다

오래전이다. 아이가 서너 살 정도였을까, 겨울 한밤에 동네 편의점을 갈 일이 생겼다. 아이가 따라 나섰다. 손을 잡고 같이 걸다가 아이가 뭔가에 걸려 넘어졌다. 꽤나 아파 보였다. 집으로 바로 돌아가자고 했으나 아이는 울음을 참으며 고개를 저었다. 편의점에 가서 과자를 사겠다는 목표가 무산될 수 있으니까. 마음이 아팠다. 아이가 넘어져서가 아니었다. 어른이 되려면 앞으로 술하게 넘어지고 차이고 힘겹게 일어나야 할 텐데 그 과정을 겪어 나가야 할 아이가 안쓰러웠다.

글 **라제기** 한국일보 영화 전문기자

한국일보 입사 후 편집부와 사회부, 국제부 등을 거쳐 엔터테인먼트 팀장과 문화부장, 신문에디터로 일했다. 2004년부터 영화를 취재해 왔으며, 영국 서식스대 대학원에서 영화학을 공부했다. 저서 『질문하는 영화들』, 『말을 거는 영화들』, 역서 『할리우드 전복자들』로 영화를 사랑하는 독자와 소통하는 한편, 뉴스레터 '영화로운'으로 매주 구독자들을 만나고 있다.



영화 <라이즈>

살다 보면 시련과 마주하게 된다. 인생은 계획대로 흘러가지 않는다. 영화 <기생충>²⁰¹⁹ 속 기택(송강호)이 “절대 실패하지 않는 계획은 무계획”이라고 말하는 장면에 다들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하지만 시련은 사람을 단련시킨다. 넘어지고 일어서고 다시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면서 앞으로 나아간다. 프랑스 영화 <라이즈>²⁰²²는 그 진부하나 예외가 많지 않은 인생 법칙을 무용을 통해 다시 강조한다.

머리 대신 ‘몸 쓰는 사람’의 성장통

<라이즈>의 주인공 엘리즈(마리옹 바르보)는 발레리나다. 처음 무대에 오르는 공연에서 착지를 잘못 해 발목뼈에 금이 가는 큰 부상을 입는다. 공연 직전 연인 쥘리앙이 다른 여자와 키스하는 모습을 목격하고 받은 충격이 영향을 줬으리라. 몸과 마음을 모두 다친 엘리즈는 더 충격적인 상황에 처한다. 의사는 발목 부상이 고질적이라 “포인(Pointe) 동작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진단과 함께 수술을 권한다. “수술하면 2년 정도 운동할 수 없다”는 말이 더해진다. 엘리즈는 26세다. 2년 쉬면 다시 무대에 돌아오기 힘든 나이가 된다. 실연도, 부상도, 수술도 엘리즈의 인생 계획표에는 없던 것이었다.

엘리즈는 고향집으로 돌아간다. 변호사인 아버지는 엘리즈를 위로하지 않는다. “내가 이래서 법 공부하랬잖아... 몸 쓰는 건 이래서 문제야”라며 타박을 먼저 한다. “몸보다 머리 쓰는 일을 해야 한다”는 말이 엘리즈의 가슴을 찌르고 마음에 상처를 쌓는다.

영화는 손 하나가 오른쪽으로 우아하게 올라가는 장면으로 시작한다. 무용수 동작이라는 건 쉽게 알아챌 수 있다. 엘리즈가 시련을 이겨 내고 남다른 비상을 해낼 거라 암시하는 대목이다. 결말이 일찌감치 예고됐다고 재미가 없는 영화는 아니다. 엘리즈의 힘겨운 인생 행보와 성장통은 우리 삶을 돌아보게 한다. 엘리즈는 아버지 말대로 머리 대신 몸을 쓰는 사람이다. 발목이 망가졌으니 더 이상 몸으로 춤이라는 언어를 만들어 낼 수 없을지 모른다는 공포감에 휩싸인다. 그는 전담 안마치료사의 도움을 받으며 재활을 꿈꾼다. 친구와 함께 예술가들을 위한 펜션에 머물며 새로운 도약을 맞이하게 된다.

엘리즈는 다친 후 자신의 삶을 되짚어 본다. 그는 발레에 대해 회의감이 딱히 없었던 것 같다. 어려서 어머니 손에 이끌려 시작한 발레는 엘리즈에게는 꿈과

미래였기 때문이다. 그는 무대에 설 수 없게 되자 클래식 발레에선 ‘여자는 꿈
적인 비극의 운명처럼 묘사’된다는 점을 뒤늦게 깨닫는다. 클래식 발레 속 이야
기는 가부장제가 지배하던 시절에 만들어졌으니 여자를 수동적인 비련의 주인
공으로만 묘사할 만도 했다.

엘리즈의 자각은 함께 화보 촬영을 하던 친구의 입을 통해 확인된다. 친구는 신
랑 앞에 신부가 무릎 꿇는 모습으로 자세를 요구하는 사진가에게 거칠게 항의
한다. 어린 여자가 남자를 숭배하는 듯한 포즈가 나쁜 고정관념을 전파한다는
이유에서다. 엘리즈가 클래식 발레에 비해 파격적인 내용을 형식에 얽매이지
않고 표현하는 현대무용에 이끌리는 건 생각의 변화와 관련 깊다.

아픔을 딛고 통념과 편견을 깨다

엘리즈는 펜션에서 현대무용을 접한다. 발목이 여전히 불편한 탓에 그저 죽은
듯 쓰러진 동작을 취하며 현대무용을 시작하게 된다. 그는 무대에 다시 서게 되
는 과정을 통해 자신을 둘러싼 통념과 편견을 떨쳐 낸다. 엘리즈는 의사의 진
단과 달리 수술 없이 다시 무대에 선다. 클래식 발레보다 자연스러운 몸동작을
강조하는 현대무용을 접하면서 발목은 자연스레 치유된다. 전담 안마치료사의
말처럼 현대의학을 부정할 필요는 없지만, 현대의학이 항상 정답을 제시하는
건 아니라는 점을 엘리즈는 몸으로 증명한다.

엘리즈는 책 읽는 ‘문화인’은 강조하면서도 발레에 대해선 부정적이었던 아버지
의 마음을 돌려놓기도 한다. 아버지는 엘리즈의 발레 초연조차 보러 오지 않았
으나 엘리즈가 참가한 현대무용 공연을 보고선 눈물을 흘린다. 머리로는 만들
어 낼 수 없는 감동을 딸의 몸이 빚어내는 장면을 마주하고서다. 책, 곧 지식과
지성만 중요하게 여기던 아버지는 무용이라는 문화의 중요성을 딸이 재할 후
오른 무대를 통해 깨닫게 된다.

영화 원제는 ‘En corps’다. 모두 함께라는 뜻이다. 엘리즈는 홀로 일어서지 않
는다. 주변의 도움과 배려로 다시 일어서게 된다. 펜션 주인은 히말라야를 정복
한 첫 여성 등반가의 말 “바닥까지 떨어져 봤기에 이렇게 높이 오를 수 있었다”
를 인용하며 엘리즈를 격려한다. 현대무용단을 이끄는 유명 안무가 호페쉬 섹터(섹터 본인으로 출연한다)는 “약한 건 새로운 초능력이야”라는 말로 엘리즈
에게 용기를 불어넣는다. 발목을 다쳐 무대에 설 수 없는, 예전보다 연약한 존재

En corps



영화 <라이즈>

가 됐다는 자괴감을 깨 준 거다. 무엇보다
엘리즈는 무용단원들과 함께 춤을 추며
자신과의 고독한 싸움을 이겨 낸다. 누군
가 손을 내밀고 함께해 주었기에 엘리즈
는 인생의 다음 단계로 올라서게 된다.

춤에 대한 영화이니 출연자들의 몸동작
이 눈길을 끈다. 발레 공연으로 시작해
길거리 댄스 배틀을 보여 주다가 현대무
용의 아름다운 군무를 선사한다. 이스라
엘 출신 세계적인 안무가 호페쉬 섹터가
안무를 맡았다.

엘리즈가 튀튀와 토슈즈를 착용한 후 발
레를 하던 모습은 트레이닝복에 스포츠
양말을 신고 현대무용을 연습하는 장면
으로 자연스레 전환된다. 섹터의 섬세한
안무 솜씨가 있었기에 가능한 연출이다.
특히 엘리즈가 동료들과 바닷가에서 서
로 손을 잡고 군무를 추는 장면이 인상적
이다. 춤은 무대에 박제된 예술이 아니라

자연, 즉 세상과 더불어 공존하는 무엇이라고 역설하는 장면이다. 섹터는 신작
〈꿈의 극장〉을 3월 14일과 1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국내에 처음으로 소개한다.
그는 2023년 국내 언론과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20년간량 세계 정상을 유지한
비결로 “작품을 만들 때 나 자신과 주변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들을 다룬 덕분
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꿈의 극장〉은 영화 <라이즈>에서 간접적으로 느낄
수 있었던 그의 ‘몸짓 세공술’을 실감할 수 있는 자리로 기대해도 좋을 듯하다.
참, 오래전 겨울밤 넘어져 무릎을 다친 아이는 어떻게 됐을까. 그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까마득하게 잊고 건강하게 자라 잘 살아가고 있다. 아마도 그날 아픔
을 참고 일어나 편의점에 갔기에, 그래서 원했던 과자를 손에 넣고 달콤한 맛을
보았기에 고통은 아예 잊어버린 게 아니었을까.

<라이즈>의 안무를 맡은 호페쉬 섹터의 신작 <꿈의 극장>은 3월 14일, 1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만날 수 있다

2025년 공연예술계 살펴보기

클래식부터 연극까지,
현장에서 더욱 빛나는 감동을 만나다

글 장지영 국민일보 선임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1997년 국민일보에 입사해 문화스포츠부장을 거쳐 현재 선임기자로 활동하고 있다. 2003년 공연을 담당하면서 그 매력에 빠졌으며, 지금은 다양한 예술 현장과 정책을 다루는 공연 칼럼니스트로도 활동하고 있다. 최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는 공연의 생존법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2025년 문화예술계를 전망할 때 빠지지 않는 키워드는 인공지능^{AI}이다. AI가 근래 전 세계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예술 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 영화, 미술, 광고, 건축, 패션 등의 제작 또는 창작 과정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하지만 세계를 강타한 AI 폭풍이 공연예술계에선 그다지 위력을 발휘하지 않고 있다. 예술가와 관객이 같은 공간에 있으면서 즉각적이고 생생한 상호작용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야말로 공연예술의 특징이기 때문이다. 기술이 발전할수록 아날로그적인 공연예술의 가치는 오히려 부각되는 셈이다. 올해에도 라이브니스(liveness, 현장성)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공연들이 대거 관객을 찾아온다.

2025년에는 국내 주요 공연장 중 이른바 ‘꺾어지는 해’를 맞은 곳이 많다. 국립정동극장 30주년, LG아트센터 25주년, 성남아트센터·충무아트센터·극장용·김해문화의전당 20주년, 국립아시아문화전당 10주년은 대표적이다. 이들 공연장이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가운데 새로운 공연장들의 개관이 주목된다.

새로운 도약과 확장을 준비하는 공연장들

우선 GS그룹의 GS아트센터가 4월 24일 개관한다. 1,211석 규모의 GS아트센터는 (구)LG아트센터 역삼의 마곡 이전 이후 비어 있던 서울 역삼역 GS타워 공연장을 리뉴얼했다. 아메리칸 발레 시어터^{ABT}의 내한공연을 시작으로 6월 29일까지 9편(25회)으로 개관 페스티벌을 연다. 경계를 넘어서는 예술가를 조명하겠다는 GS아트센터의 올해 게스트는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시각예술가 겸 연출



가 윌리엄 켄트리지, 스페인 안무가 마르코스 모라우다.

오는 6월 20일 부산 최초의 클래식 전용홀인 부산콘서트홀도 개관한다. 빈야드 스타일의 대공연장^{2,011석}과 소공연장^{400석}으로 이뤄진 부산콘서트홀은 비수도권 최초로 클래식 콘서트홀에 파이프오르간이 설치됐다. 현재 건설 중인 부산 오페라하우스는 2027년 하반기 개관 예정이다. 한국의 제2도시이면서도 문화 불모지로 알려졌던 부산은 2008년 롯데그룹의 1000억 원 기부 약정과 2010년 주한미군의 하야리아 부대 부지 반환을 계기로 오페라하우스와 콘서트홀 건립을 추진했다. 그리고 복잡다단한 과정을 거쳐 마침내 부산콘서트홀이 먼저 문을 열게 됐다. 지난해 두 공연장의 예술감독으로 지휘자 정명훈이 선임됐으며 운영 조직인 '클래식 부산'이 설립됐다. 부산콘서트홀은 6월 20~28일 베토벤을 테마로 정명훈 예술감독이 이끄는 개관 페스티벌을 연 뒤 연말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일 예정이다.

또 롯데그룹은 서울 잠실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점의 상영관 한 곳을 개조해 올 여름 459석의 공연장으로 개관한다. 침체가 길어지는 영화 시장과 달리 공연 시장은 꾸준히 성장하고 있어서다. 2024년 티켓 매출로 본 공연(대중음악 포함) 시장 규모는 1조4421억 원으로 영화 시장 1조2614억 원을 넘어서서, 2023년 첫 추월 이후 격차가 더 벌어졌다. 잠실 롯데월드 외부에 뮤지컬 전용 극장인 1,260석의 샤롯데씨어터를 운영하고 있는 롯데그룹은 새로 생긴 공연장에 뮤지컬과 함께 연극도 올릴 예정이다.

별들의 내한... 풍성한 클래식 음악계

올해에는 부산콘서트홀 개관도 있어서 어느 때보다 클래식 음악 무대가 호화롭다. 세계적인 오케스트라들과 스타 연주자들의 공연이 잇따라 열리기 때문이다. 이른바 '세계 3대 악단'이 명지휘자들과 11월 잇따라 내한한다. 베를린 필하모닉은 키릴 페트렌코, 빈 필하모닉은 크리스티안 틸레만, 로열 콘세르트허바우는 클라우스 메켈레가 각각 지휘봉을 잡는다.

이 외에 유럽 체임버 오케스트라(4월), 프랑스 국립 오케스트라(4월), 베를린 방송 교향악단(5월), 뉴욕 필하모닉(6월), 파리 오케스트라(6월), 밤베르크 심포니(5월 말·6월), 스위스 로망드 오케스트라(7월), 콜레기움 보칼레 겐트(9월), 라 스칼라 필하모닉(9월), 런던 필하모닉(10월), 북독일 방송 엘프필하모니(10

월), LA 필하모닉(10월), 필하모니아 오케스트라(12월), 산타 체칠리아 오케스트라(12월) 등이 한국을 찾는다. 압권 츠베덴이 이끄는 서울시향과 정명훈이 일곱 차례 지휘봉을 잡는 KBS교향악단의 대결도 관심을 끈다.

내한하는 스타 연주자들은 일일이 꼽기 어려울 정도다. 먼저 피아니스트 언드리시 시프(3월)가 자신의 실내악단 카펠라 안드레아 바르카와 함께 내한한다. 전 세계 음악 서비스에서 390억 스트리밍을 기록한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루도비코 에이나우디(4월)도 8년 만에 내한한다. 그 외의 피아니스트 라인업을 보면 후지타 마오(2월), 츠지이 노부유키(3월), 브루스 리우(5월), 드미트리 마슬레예프(6월), 미하일 플레트네프(6월), 알리스 자라 오토(7월), 라파우 블레하치(7월), 스미노 하야토(8월), 율리아나 아브제예바(9월), 예핌 브론프만(9월), 크리스티안 지메르만(10월), 이매뉴얼 액스(11월), 키릴 게르시테인(12월) 등으로 이어진다. 바이올리니스트로는 크리스티안 테츨라프(5월), 파비오 비온디(5월), 미도리(11월)가 대표적이다. 또 성악가로는 3월 나란히 무대에 서는 독일 출신의 테너 요나스 카우프만과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가 눈에 띈다.

'한국 클래식의 아이돌'인 피아니스트 조성진과 임윤찬도 무대에 오른다. 조성

베를린 필하모닉과 내한하는 지휘자 키릴 페트렌코 ©Chris Christodoulou



진은 올해 서거 150주기인 라벨의 피아노 독주곡과 협주곡 전곡 음반을 발매한 데 이어 6~7월 8개 도시에서 리사이틀을 연다. 이어 12월 라흐마니노프 〈파가니니 주제에 의한 광시곡〉을 김선욱 지휘 경기필하모닉과 협연한다. 통영국제음악제(3월 28일~4월 6일) 상주음악가로 선정된 임윤찬은 바흐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선보인 뒤 6월에 메켈레 지휘 파리 오케스트라와 라흐마니노프 피아노 협주곡 4번을 협연한다. 이어 스승 손민수 잉글랜드 음악원 교수와 7월 피아노 듀오 공연, 이탈리아 산타체칠리아 오케스트라와 12월 협연이 예정됐다.

임윤찬 외에 롯데콘서트홀의 첼리스트 최하영, 금호아트홀의 현악 4중주단 아레테 콰르텟, 마포아트센터의 바리톤 박주성, 더하우스콘서트의 색소포니스트 브랜든 최는 올해 상주음악가로서 흥미로운 프로그램을 준비 중이다. 이 외에 이색적인 공연도 관객과 만날 예정이다. 프랑스 소설가 베르나르 베르베르가 8월 세종솔로이스츠의 ‘헝겝농크!’ 페스티벌에서 대본을 집필하고 내레이터까지 맡아 출연할 예정이다. 그리고 넷플릭스 시리즈 〈오징어 게임〉과 영화 〈기생충〉 등의 음악으로 유명한 작곡가 정재일은 9월 서울시향의 위촉으로 신작을 선보인다.

변함없는 열기, 무용과 뮤지컬

지난 몇 년간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발레의 열기가 올해에도 지속될 전망이다. 국내 양대 발레단인 국립발레단과 유니버설발레단이 풍성한 라인업을 예고했다. 특히 국립발레단은 강수진 단장의 현역 시절 대표작 〈카멜리아 레이디〉를 5월 초연한다. 존 노이마이어가 안무한 〈카멜리아 레이디〉는 그동안 슈투트가르트발레단 내한공연으로 두 차례 국내에서 선보였을 뿐이다. 유니버설발레단은 〈심청〉과 함께 한국 창작발레의 대표작으로 꼽히는 〈춘향〉을 3년 만인 6월에 선보인다. 지난해 컨템퍼러리 발레를 표방하며 창단된 서울시발레단은 3월 오하드 나하린의 〈데카당스〉, 6월 요한 잉거의 〈위킹매드&블리스〉 등 연간 4회 공연을 올린다.

특히 올해에는 〈ABT-클래식에서 컨템퍼러리까지〉를 비롯해 7월 〈로열발레단-더 퍼스트 갈라〉, 8월 〈파리오페라발레 에투알 갈라〉 등 러시아를 제외한 ‘빅3’ 발레단 주역 무용수들의 갈라 공연이 잇따라 열린다. ABT에서는 서희·안주원·한성우·박선미, 로열발레단에서는 전준혁, 파리오페라발레에서는 박세은·강호현이 수석 또는 솔리스트로 활동하고 있다. 발레는 아니지만 3월 호폐쉬 섹터



로열 콘서트허바우 오케스트라 상임 지휘자 클라우스 미켈레 ©Marco Borggreve

의 〈꿈의 극장〉, 6월 매튜 본의 〈백조의 호수〉, 11월 피나 바우시의 〈카네이션〉 등 거장 안무가들의 작품도 기대를 모은다.

대중음악을 뺀 국내 공연 시장에서 70%대의 비중을 차지하는 뮤지컬의 활황은 올해에도 계속될 예정이다. 강력한 팬덤의 스타들이 지배하는 대극장 뮤지컬들을 비롯해 흥미로운 소재로 무장한 소극장 뮤지컬들까지 준비돼 있다. 신작 가운데 눈길을 끄는 것은 신춘수 프로듀서가 브로드웨이에서 제작한 〈위대한 개츠비〉의 투어 공연이다. GS아트센터의 첫 대관작으로 7월 개막한다.

연극 무대 찾는 스타 배우들

연극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에도 스타 배우들이 출연하는 공연이 관객을 극장에 불러 모을 전망이다. 드라마·영화·OTT 시장 위축으로 제작 편수가 줄면서 배우들이 앞 다투어 연극으로 눈을 돌리고 있어서다. 올해에 예정된 작품 가운데 5월 LG아트센터와 국립극단이 각각 이영애와 이혜영을 앞세워 공연하는 〈헤다 가블러〉에 관심이 쏠린다. 하루 차이로 나란히 개막하는 만큼 치열한 경쟁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 됐다. 또 4월 〈시련〉, 7월 〈렛미인〉, 11월 〈라이프 오브 파이〉 등 화제성 높은 대극장 연극에도 스타 배우들이 대거 출연할 예정이다. 이 외에 전 세계에 이머시브 연극 열풍을 불러일으킨 극단 펀치드링크의 〈슬립 노 모어〉가 8월 옛 대한극장 건물에서 오픈런 공연에 들어간다.



동유럽 자동차 이야기

철의 장막 안을 달린 자동차들

트러넨트 601 ©shutterstock



글 **김상규** 서울과학기술대 디자인학과 교수
서울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 국민대 대학원 공업디자인학과를 졸업하고, 퍼시스 가구연구소에서 의자를 디자인했다. 의자를 비롯한 사물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서 큐레이팅과 아카이브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저서로는 『의자의 재발견』 『디자인과 도덕』 등이 있으며 대표적인 의자 디자인으로는 파트라에서 생산 중인 'STING' 'SKIN' 'CITY' 가 있다.

지난 설 연휴 기간에 해외로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공항에서 오래 기다렸다고 들 한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여행사와 항공사가 곤경에 처했던 일이 었그제 같은데 이전 공항 출국장이 북새통이라니 그야말로 격세지감이다. 여행사들은 다시금 여행상품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중에서도 동유럽 여행패키지 안내가 눈에 들어온다. '동유럽'이라니. 우리가 동아시아, 중남미 등 대륙의 일부를 일컫는 표현과는 확실히 다른 느낌이다. 냉전 시기를 기억하는 사람이라면 동유럽이 사회주의 체제의 국가들을 서유럽과 구분하는 표현임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한때는 영영 갈 수 없는 곳이었다.

소련이 해체되었고 철의 장막鐵-帳幕, Iron Curtain에 있던 나라들은 차례차례 독립해서 국가 이름을 바꾸기도 했으니 서유럽과 다른 체제를 가진 지역이라는 의미의 동유럽은 이제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지만 그 흔적은 금방 사라지지 않는다. 예컨대, 과거의 동유럽 지역뿐 아니라 유럽의 도시 한구석에서는 낯선 자동차를 간간이 만나게 된다. '클래식 카'라고 하기에는 초라하고 낡은, 그야말로 구식 자동차인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브랜드도 아닌 자동차라면 소련 해체 이전의 동유럽에서 제작된 자동차가 틀림없다.

적어도 20세기 말까지 자동차 디자인은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장 화려한 전문 분야였고 매년 새로운 자동차가 등장해서 신분의 상징처럼 소비되곤 했다. 그러면 철의 장막 안은 어땠을까? 그곳 사람들도 자동차를 타고 다녔을 텐데 그 세계에 자동차 디자인이 있었을까?



⇐ 영화 <Go Trabi Go>의 포스터와 국내에서 출시된 비디오 버전의 커버
 ⇓ 베를린 시내의 트라반트 601
 ©김상규

트라비에게 갈채를

동독에 살던 슈트르츠 우도는 독일이 통일되고 여행이 자유화되자, 죽기 전 나폴리를 보라고 외친 괴테의 말에 따라 아내 리타와 딸을 데리고 나폴리로 여행을 떠난다. 동독의 자동차 트라비를 타고 떠난 그들이 처음 머문 곳은 서독에 사는 리타의 언니 부부 집이었다. 서독 주민들로부터 동독에서 온 거지 취급을 당하는 등 괘시를 받으면서도 일행은 트라비를 몰고 이탈리아로 향한다. 트라비는 잦은 고장으로 속을 썩이기도 하지만 슈트르츠 가족에게 봉사하면서 드디어 로마에 도착한다.

<트라비에게 갈채를 Go Trabi Go> 1991이라는 제목의 영화 내용이다. 트라비라고 불리는 이 작은 자동차가 그 유명한 ‘트라반트’다. 1963년부터 1990년까지 판매되었던 이 차는 동독 주민이 서독으로 탈출할 때 활용되기도 했다. 한동안 베를린에 머물 때 거리에서 트라반트가 눈에 띄면 예사롭지 않게 보인 것도 그 때문이었다. 격동의 역사를 지나온 자동차, 어쩌면 누군가를 다른 세상으로 데려다 준 자동차가 아닐까 상상하곤 했다. 어느 날 벼룩시장의 잡동사니들 틈바구니에서 <Trabant 601> 카탈로그를 발견하고 얼른 구입했다. 사진을 토대로 그린 이미지들에다가 자동차 내부를 설명하는 테크니컬 드로잉까지 인쇄되어 있었다.

동독의 자동차

동독의 자동차 트라반트라고 하면 ‘트라반트 601’ 모델을 가리키지만, 그 이전에 여러 모델이 있었다. 츠비кау 지역의 자동차 회사 VEB 작센링 VEB Sachsenring Zwickau의 엔지니어들이 1951년에 개발한 P70 모델부터 P50을 거쳐 1962년에 ‘트라반트 600’으로 알려진 P60이 나오면서 트라반트의 전형적인 모습이 나오기 시작했다. 트라반트라는 이름은 P50을 제작하던 직원들이 우리도 번호가 아니라 이름을 지어야 하지 않겠냐는 요구를 하자 여러 가지 제안된 이름 중에서 선택된 것이라고 한다.

흥미로운 점은 P70 모델이 훗날 일본의 닛산 Nissan 자동차에서 내놓은 ‘피카로’ 모델의 원형이 되었다는 점이다. 둥글둥글하면서 친근감 있는 형태인데 그 이유는 독특한 소재 덕분이라고 할 수 있다. 동독에서는 철판을 가벼운 소재로 대체하려고 했고 그 결과가 듀로플라스트 Duroplast라는 합성수지였다. 그 소재를 처음 적용한 모델이 바로 P70였다.

독일역사박물관, DDR 뮤지엄에는 트라반트가 한 대씩 전시되어 있고 시내에서 관광객을 실은 트라반트를 종종 볼 수 있다. 베를린의 기념품점에서도 트라반트 미니어처를 손쉽게 구할 수 있으니 동독의 아이콘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닛산의 피카로 쿠페
 ©닛산자동차 홈페이지

같은 시기에 동독의 국영 자동차 기업에서는 바르트부르크라는 모델도 생산하고 있었고 특히 311 모델은 우아한 스타일로 해외에 잘 알려졌다. 그런데 어떻게 트라반트가 동독의 대표적인 자동차가 될 수 있었을까? 그 답은 무척 저렴했고 튼튼해서 수명이 대단히 길었다는 점이다. 그에 비하면 바르트부르크는 고급 승용차라서 사회주의 체제에서는 아무래도 대중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트라반트는 부품이 복잡하지 않아서 수리도 쉬웠고 모델 변경이 잦지 않아서 그만큼 대규모 생산이 가능했기 때문에 동독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자동차가 되었다. 실제로 트라반트 601은 1963년에 개발된 뒤에 거의 변함이 없었던 덕분에 1990년까지 지속적으로 생산될 수 있었다.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 하나 있는데 80년대 초부터 폭스바겐이 동독과 경제협력 차원에서 엔진 일부를 동독 자동차 기업에서 생산해서 납품받았다고 한다. 그렇게 동독 준비가 시작된 것이라고도 볼 수 있다.



동독의 바르트부르크 311
©위키피디아

폭스바겐 이전의 스코다

1954년 런던에서 열린 모터쇼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개발한 자동차가 등장했다. ‘스코다 1200’이라는 모델이다. 고전적인 자동차로 손색이 없는 디자인이었고 모터쇼에서 좋은 반응을 얻자 곧장 영국에서 수입하게 되었다. 스코다는 동독의 자동차들 못지않게 유명세가 있었다.

1200 모델 이후로 큰 변화가 없었으나 1970년에 시작된 S110R은 꽤 유명해졌다. 이 모델을 대체하여 ‘래피드Rapid’가 주력 수출 모델이 되었다. 스코다는 심기일전해서 새 모델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여기에는 베르토네가 스타일링에 도움을 주었고 포르쉐에서 기술적인 지원을 받기까지 했다. 그렇게 1989년에 ‘페



⇒ 체코슬로바키아의 스코다 1200 광고

↓ 1984년에 생산된 스코다의 래피드
©스코다 홈페이지

이버릿’이 판매되기 시작했다.

그런데 그해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동유럽이 사회주의에서 풀려나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바야흐로 본격적인 자동차 디자인이 날개를 달 때가 된 것이다. 틀린 말이 아니지만 그 시점 이전과 이후로 스코다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된다. 바로 이듬해 스코다 자동차의 모기업은 민영화되어 곧장 폭스바겐과 합병했다. 그리고 스코다의 대표 모델이던 래피드는 폭스바겐의 관심 밖이었던 탓에 단종되고 말았다.

이후부터 스코다의 멋진 로고가 붙은 자동차라고 해도 그저 폭스바겐의 디자인에 지나지 않는다. 1992년 체코와 슬로바키아로 분리된 시점이 역사적으로는 진일보하는 계기였으나 체코의 자동차 디자인 측면에서 보면 체코의 고유한 디자인 특성이 사라지는 역설적인 순간이다.

비운의 발라톤

발라톤은 호수가 있는 헝가리 관광지로 알려져 있으나 독특한 자동차의 이름이기도 하다. 동구권의 경제협력기구였던 경제상호원조회의COMECON에 의해 헝가리는 승용차를 만들 수 없었다. 따라서 오토바이 엔진을 사용한 초소형차-microcar로 물꼬를 트는 시도가 있었고 그중 하나가 발라톤Balaton이었다. 전투기 제조장에서 제작된 탓인지 이 차의 문은 전투기의 조종실처럼 슬라이딩 방식으로 열린다. 그러니까 문과 창, 지붕이 통째로 뒤로 밀려야 드나들 수 있는 것이다.

발라톤은 간혹 우스꽝스러운 자동차의 대표적인 사례로 소개되기도 했다. 수작업으로 만든 것이나 마찬가지로 장난감처럼 보일 만하다. 하지만 1956년 노동절에, 지금도 잘 알려진 이세타Isetta 자동차와 함께 당당하게 차량 행진을 하는 사진을 보면 헝가리 사람들에게는 결코 우스운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헝가리 정부에서도 발라톤과 알바 레지아Alba Regia를 주력으로 하는 초소형차 생산을 고려했으나 실현되지 않았다. 행진이 있던 그해 10월에 헝가리 혁명이 일어났고 11월에 소련이 전차부대를 앞세워 무자비하게 진압하는 사건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소련은 헝가리가 승용차를 생산하지 못하게 했고 동독에서 트라반트와 바르트부르크를 수입해서 충당하도록 했다. 결국 발라톤은 본격적으로 생산도 해 보지 못하고 자취를 감추고 말았다.



↑ 헝가리의 발라톤 ©작자 미상

↗ 1956년 헝가리 노동절 행진. 왼쪽 첫 번째 자동차가 발라톤, 세 번째가 이세타, 마지막 자동차가 알바 레지아다 ©작자 미상

동유럽의 자동차를 어떻게 볼 것인가

『굿바이, 동유럽』 책과 함께, 2024.을 쓴 제이콥 미카노프스키는 “동유럽 같은 것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 “동유럽이란 용어는 외부 사람들이 편의적으로 만들어 낸 말이다”라고 했다. 그러면 어떤 말로 그 지역을 일컬을 수 있을까?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기 전, 즉 동구권이 소련의 영향을 받고 있던 시기에도 체코, 헝가리, 폴란드 같은 나라의 사람들은 스스로 중유럽에 속한다고 주장했다. 아무튼 ‘동유럽’의 자동차 디자인은 1989년 이전의 디자인에 국한해서 생각해야 할 것이다. 예컨대, 헝가리는 이제 번듯한 승용차를 만들고 있으나 그것을

동유럽 자동차라고 보기는 어렵다. 벤츠를 비롯한 유럽 자동차 브랜드의 생산 기지가 되었고, 버스를 비롯한 상용차를 생산하면서 명맥을 유지하던 헝가리 자동차 회사는 진작에 폐업하고 말았으니 말이다.

앞에서 살펴본 디자인은 지금의 자동차 디자인 기준으로 보면 무척 뒤떨어져 보이는 게 사실이다. 오래전에 디자인되고 생산된 것이니 그럴 만하다. 그런데 한국의 자동차 디자인 수준을 시발자동차나 새나라자동차의 모델로 평가한다면 우리가 수긍할 수 있을까?

눈여겨볼 것은 동유럽의 자동차들이 왜 동시대의 서유럽이나 미국과는 그렇게 다른 디자인이었는지, 어떻게 그렇게 다양할 수 있었는지 하는 점이다. 이렇게 관점을 달리해 보면, 성능과 생산성으로 서유럽과 단순 비교하기보다는 자동차라는 공통 사물이 서로 다른 체제 및 생활방식에서 어떻게 다른 모습으로 등장하는지 살펴보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ast European Cars』 Sutton Publishing, 2000를 쓴 줄리언 노월은 서문에서 동유럽 자동차 디자이너들이 재정적 한계와 재료 수급이 원활하지 않은 조건 속에서 고군분투해야 했음을 언급하고 있다. 게다가 그들은 정치 상황의 변화로 좌절을 겪기도 했다. 그렇지만 대부분의 기업들은 세계 대전 이전부터 자동차를 만들기 시작했고 디자이너와 엔지니어는 세계 대전에 이어 공산주의 정부 수립과 해체라는 큰 변화 속에서도 그들만의 자동차 모델을 내놓으려는 열망을 놓지 않았던 것 같다. 계획경제의 틀에서 굳이 새로운 모델을 만들 이유가 없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자본주의 국가들에 비하면 무척 더디지만, 모터쇼에 출품하고 자동차 경주대회에 참여한 것을 보면 새로운 자동차를 꿈꾼 사람들이 있었던 것이 분명하다.

다만, 우리가 그들을 잘 알지 못할 뿐이다. 소련 해체와 함께, 그들의 노력이 역사에 기록되지 않고 사라진 탓이다. 그래서 그 내막을 잘 모르는 어떤 이들이 사회주의 체제의 생산물을 조롱하는 증거물 중 이질적인 자동차들의 몇몇 사진이 소환될 뿐이다.

어디 자동차 디자인뿐이겠는가. 매체에 소개되는 어떤 역사적 디자인도 철의 장막 안에서 일어난 디자인 이야기를 담지는 않는다. 그러니 그동안 우린 이 세계의 반쪽만 알고 그것이 전부라고 믿어 온 셈이다. 나머지 반쪽, 그 미지의 디자인 이야기를 몇 회에 걸쳐 하나씩 풀어 보려 한다.

성남아트리움

백건우와

모차르트 KUN-WOO PAIK &
MOZART



2025.
4.10. THU. 7:30PM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모차르트

피아노 소나타 16번 다장조
론도 가단조
피아노 소나타 12번 바장조
글라스 하모니카를 위한 아다지오 다장조
작은 장례식 행진곡 다단조
피아노 소나타 10번 다장조
환상곡 다단조



티켓 R석 6만원 S석 4만원 시야제한석 2만원 예매 인터파크 1544-8117 문의 031-783-8000

SEONGNAM+

성남의 얼굴
이종민, 전효성 작가

성남아트센터 개관 20주년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캘린더+맵

3월의 큐레이션
월별 프로그램 가이드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안내

성남아트센터 탐구생활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특화거리

이중민, 전효성 작가

예술은 상상을 즐기는 것이다

일찍이 발터 벤야민이 언급한 ‘기술복제 시대의 예술’을 넘어, 오늘날의 예술은 기술복제는 물론 무한생성과 변형의 시대에 다다랐다. 기술과 예술의 경계가 점차 희미해지는 지금, 이들의 상호작용은 예술가의 창작에 어떤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을까? 4월 27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에서 진행 중인 성남작가조명전 I <디:바운더리>에서, 이중민·전효성 작가는 청년 작가들의 참신한 시각으로 기술과 예술 그리고 인간의 연결성에 대한 진중한 고찰을 펼쳐 낸다. 성남 지역을 기반으로 창작 활동을 이어가는 두 작가가 전하는 작업과 영감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 보았다.

글 남소연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과장
사진 최재우

(왼쪽부터) 전효성 작가와 이중민 작가

—— 먼저 작가님과 작가님의 작업에 대해 간단히 소개 부탁드립니다.

이중민 저는 현대사회와 기술문명의 이중성과 모순을 주제로 한 창작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술 담론 자체를 작품의 주요한 화두로 설정하고 이를 드러내거나 뒤집는 방식으로 작업하죠. 처음에는 평면회화로 시작했지만 현재는 영상·설치·웹 등 다양한 확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전효성 안녕하세요, 미디어 환경 속 이미지의 생산자이자 소비자이고, 이에 대한 경각심을 이야기하는 전효성입니다. 초기에는 미디어를 활용해서 이상향의 이미지를 시각화하는 작업에 주력했어요. 컴퓨터 그래픽으로 이미지를 제작하고, 프로젝션 기법으로 현실에 투사하여 이상 공간을 표현하는 작업이었죠. 작년부터는 미디어 속에서 복제되고 재생산된 이미지가 현실에 끼치는 영향을 실감하기 시작해서, 관련 주제로 작업 세계를 확장하고 있습니다.

—— <디:바운더리> 전시에서는 어떤 작품을 만날 수 있을까요?

이중민 반달갤러리 2층 초입 부분에서는 제 드로잉과 평면회화를 접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를 작업하고 있지만 제게 평면회화는 언제나 가장 어려운 미션이자 가장 큰 애착을 지닌 매체이기도 해요. 먼저 말씀드렸듯 저는 ‘현대사회와 기술문명’이라는 주제 아래 작품을 제작하는데요, 전시장 2층 복도의 평면부터 안쪽에 자리한 영상예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이 외에 새로이 실험 중인 신작도 만나 보실 수 있습니다. 중세 제단화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요, 그동안 실험했던 다양한 매체들을 하나의 프레임으로 엮어 내고 압축하는 시리즈입니다.

전효성 저는 미디어를 활용해 이상향의 이미지를 시각화한 첫 번째 작품 <봄, 깨어나는 숲Spring>, 이미지가 생산·복제되는 미디어 환경을 소재로 제작한 <Reproduction> <채널Channel> <Beyond the Scene> 그리고 제가 바라보는 미디어에 대한 고찰이 담긴 <Think About Media>까지 총 다섯 작품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Reproduction>의 경우, 어떤 환경 속에 적응하기 위해 비슷한 듯 다른 형상으로 계속 움직이고 변화하는 이미지의 모습을 표현했어요.

—— 두 작가님과 도시 성남의 인연, 혹은 연결고리는 무엇인가요?

이중민 초·중·고까지 모든 학창시절을 보내고 지금도 성남에 살고 있죠. 다른

곳에서 산다는 생각은 해 본 적이 없을 정도입니다. 이렇게 친숙한 도시지만, 마치 미시감(未視感)처럼 평소 익숙했던 것들이 낯설게 다가오는 느낌, 매번 보는 광장과 버스 안 풍경이 달라지는 경험에 익숙하기도 해요. 이러한 ‘낯섦’은 제가 살아가는 도시에 대한 다채로운 해석을 만드는 영감이 됩니다. 이러한 경험을 토대 삼아 2022년에는 성남을 주제로 청년 문제나 도시 위기에 대한 작품을 제작하기도 했죠.

전효성 성남은 제 고향입니다. 태어나서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가장 오랜 시간 살았던 도시다 보니 애착이 커요. 대학 졸업 후 서울에 살며 작업실을 운영했지만 본격적인 작가 활동은 성남에서 시작하고 싶은 마음이 항상 자리하고 있었죠. 지난해 드디어 성남에 집과 작업실을 마련해서, 이곳을 기반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쳐 갈 계획입니다.

—— 이종민 작가님은 다양한 매체 작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요, 그중 가장 애착이 가는, 혹은 매력을 느끼는 작업이 있으신지요?

이종민 사이버펑크 SF 소설을 좋아하는 제 취향이 반영된 작업이자 처음 다원적인 시도를 한 〈Machine butcher〉 작업입니다. 이전까지 평면회화를 지속적으로 작업해 왔지만, 다층적 레이어를 가진 사이버펑크 장르를 실험하기 위해 다양한 매체에 도전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죠. 이를 실행에 옮긴 첫 작품이자 시리즈로 기획한 작업이 바로 〈Machine butcher〉입니다.

—— 전효성 작가님은 오페라와 연극, 대중 콘서트 등 공연예술 현장에서 무대 영상 디자인 작업을 해 오셨습니다. 현장과 개인 작업 각각의 의미, 또 병행이 주는 장점이 있다면요?

전효성 무대 영상은 제가 예술가로서 처음 꿈꾸던 이상 공간 표현을 실현할 수 있는 작업입니다. 무대 공간은 공연 전에는 현실이었다가 공연이 시작되면 작품 속 세계로 변하죠. 제 손으로 그 세계를 만들어 간다는 만족감이 정말 커요. 하지만 많은 이들과 협업하는 공동 작업물 형태라, 개인의 창작 세계를 온전히 표현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개인 작업으로 충족합니다. 관심 있는 주제를 깊이 탐구하고 제약 없이 표현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매력인데요, 한 명의 예술가로서 메시지를 담아 작품을 만들고 선보일 수 있다는



이종민 작가는 현대사회와 기술문명의 이중성을 주제로 한 작업을 선보인다

점에서 행복감과 에너지를 얻습니다.

미디어를 활용한 작품을 만들다 보면 협업이 필요한 과정이 많아요. 무대 작업에서 얻은 다양한 분야의 인사이트와 인프라를 제 작업에 활용하기도 하고, 개인 작업의 시행착오가 무대 영상 작업의 밑거름이 되기도 합니다. 두 작업의 병행은 예술가로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상호보완적 효과가 있다고 생각해요.

—— 생성형 AI 등 최근 급성장한 기술의 발달이 예술가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종민 AI가 만들어 내는 이미지와 텍스트는 예술이 아니라 아무런 의미 없는 데이터입니다. 저는 오로지 인간만이 예술을 부여하고 예술을 통해 사유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예술가들은 의미 없는 데이터들을 엮어 예술을 만들어 내기에, AI는 좋은 동료입니다.

전효성 기술의 발전에서 제가 실감하는 부분은 ‘기술에 치중하지 않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많은 기술 중 작업에 필요한 부분만 선별, 활용하는 것이 중요하죠. 기술의 발전은 개인이 따라갈 수 없고, 기술 중심으로 치우치면 결국 가장 먼저 도태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현대 미디어 환경의 다양한 모습을 담아내는 전효성 작가

—— 현재 주목하는 관심사, 또 실제 작업에서 즐겨 사용하시는 생성형 AI 프로그램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민 플릭스Flux model, 미드저니Midjourney, 클로드Claude, GPT, 제미니Gemini 등 여러 AI 프로그램들을 상황에 맞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기존 서비스들만 이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최근에는 생성형 AI 모델의 설계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전효성 XR 분야에 관심이 많아요. 인터랙티브 미디어 속에서 작품의 메시지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환경 구현과 활용 방법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현재 작업에서는 미드저니Midjourney, 스테이블 디퓨전Stable Diffusion, 런웨이Runway와 같은 생성형 AI를 사용해서 작업에 필요한 스타일 프레임을 만들거나 이미지 연구를 진행해요. 짧은 시간 안에 다량의 이미지를 만들 수 있어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창작과 생업의 병행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배분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이종민 저는 그냥 ‘잠을 안 자면 된다’는 마인드라서요(웃음). 작업과 생업, 또 인간관계까지 어느 하나를 포기하고 싶진 않아서 최대한 덜 자고 시간을 활용

해요. 작업 면에서도 다양한 AI 툴을 고루 알아 가고 활용하기 위해 잠을 줄이고 빠르게 많은 것들을 처리하는 루틴을 따르고 있어요.

전효성 처음에는 일과 창작의 밸런스를 찾기가 조금 어려웠어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았는데, 스튜디오 체제로 동료와 역할 분담을 하면서 나아진 것 같아요. 프로젝트가 겹칠 때 누구는 이 부분을 전담, 누구는 개인 작업, 이런 식으로 배분하다 보니 한결 균형을 찾게 됐죠. 다만 그럼에도 개인 여가 시간은 좀 포기하고, 일과 창작 작업에만 최대한 집중하고 있어요.

—— <다:바운더리> 전시는 작가님에게 어떤 의미인가요?

이종민 성남아트센터 바로 옆에 자리한 태원고등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서 매일 성남아트센터를 보며 학창시절을 보냈죠. 당시에는 그저 그림 그리기를 좋아할 뿐이라 여기서 전시를 하는 날이 올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은 그때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더 많은 곳을 다녔지만, 여전히 세상은 넓고 모르는 것이 많아요. 그리고 미래는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죠.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크든 작든 ‘예측할 수 없다’는 사실은 변함이 없으니, 그저 현실을 바라보고 앞으로의 상상을 즐기는 것이 저의 예술입니다. 같이 즐기셨으면 해요.

전효성 성남에서 제 작업을 처음 선보이는 전시이자, 작년부터 연구했던 ‘이미지가 생산되고 복제되는 미디어 환경’에 관한 작품을 보여 드릴 수 있어 정말 기쁜 마음이 커요. 주위를 둘러싼 미디어 환경에 대해 고민해 보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성심성의껏 준비했으니, 관객 여러분도 의미 있는 시간이 되셨으면 합니다.

—— 앞으로 작가로서의 계획이 있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종민 뉴욕에 살고 있는 지인과 현지에서 함께하는 작업을 구상 중인데요, 아시아에 대한 담론을 담아낼 수 있는 아이디어에 대해 고민하고 있어요. 이와 별개로 앞으로도 성남에 기반한 작업은 계속 할 생각입니다. 실제로 친구들은 저를 ‘성남의 아들’이라고 부르기도 해요(웃음).

전효성 개인 작업을 좀 더 많이 선보이고 싶어요. 장기적으로는 해외 전시도 욕심을 내고 싶고요. 지금의 제 작업 형태는 미디어 영상 분야에 집중되어 있지만, 이 경계를 좀 더 확장해서 다양한 인터랙티브 요소로 관객에게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작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성남아트센터, 20년의 기록
2005-2025
찬란히 빛나던 순간들

2005년 10월 14일,
성남시민의 문화향유를 위해,
세계 속의 문화도시 성남시를 만들기 위해
성남아트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
도시 곳곳에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해
함께 걸어온 그간의 발자취,
알차고 풍요로웠던, 아름다운 예술의 기록들을
2025년 한 해 동안 차례대로 살펴봅니다.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성남아트센터
역대 주요
공연·전시

2005-
2007
ARCHIVE

2005

- 길버트 카플란의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10.15
- 이반 피셔 &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 10.17
- 쿠르트 마주어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19
- 바리톤 마티아스 피르네 리사이틀 10.22
- 몬테카를로 발레단 <신데렐라> 10.27~10.29
- 아크로바틱 서커스 <디아볼로> 11.9~11.13
- 제작오페라 <파우스트> 11.24~11.27
- 래리 칼튼 & 밥 제임스 12.20~12.21
- 세계바다사진전 9.13~10.16
- 세바스티앙 살가도 사진전 11.23~12.11

2006

- 앤드류 맨즈 & 잉글리시 콘서트 2.11
- 메조소프라노 안네 소피 폰 오테 리사이틀 4.3
- 마티네 콘서트
- 제작오페라 <마술피리> 4.25~4.30
- 몽탈보-에르비유 댄스 컴퍼니 <on dance> 6.2~6.3
- 뮤지컬 <미스 사이공> 6.28~8.20
- 고란 브레고비치와 웨딩 & 퓨너럴 밴드 8.31
- 제1회 성남국제무용제 '환경과 춤' 9.5~9.10
- 슈투트가르트발레단 <말괄량이 길들이기> 10.14~10.15
- BBC 심포니 오케스트라 10.21
- 아크로바틱 서커스 <디아볼로 2> 11.16~11.19
- 피카소, 로댕과 떠나는 유럽 여행 1.5~3.5
- 성남의 얼굴전 '삶의 시간, 시간의 얼굴' 7.10~7.27

2007

- 라디오 프랑스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5.4
- 나이젤 케네디 콰르텟 내한공연 5.9
- 제1회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축제 5.22~5.27
- 이블린 글레니 콘서트 5.23
- 기돈 크레머 & 크레메라타 발티카 6.22
- 제2회 성남국제무용제 9.6~9.10
-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10.11~10.14
- 몬테카를로 발레단 <라벨르> 10.17~10.18
- 엘리야후 인발 & 몬테카를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0.19
- 크리스티안 틸레만 & 뮌헨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11.11
- 성남의 얼굴전 6.21~7.6
- 세계명화대전: 유럽현대미술의 위대한 유산 12.30~2.24



2005

금빛 맨발의 신데렐라를 만나다

몬테카를로 발레단 〈신데렐라〉 | 10.27~10.29 | ↑

성남아트센터의 무용 공연은 '선택과 집중'으로 집약된다. 공연 횟수가 적은 대신 단 한 편을 선택할지라도 예술적인 완성도를 갖춘 화제작을 엄선했다. 모나코 왕실이 후원하는 최정상 컨템퍼러리 발레단인 몬테카를로 발레단의 〈신데렐라〉 한국 초연도 그중 하나다. 안무가 장 크리스토프 마이요의 기발하면서도 우아한 상상력으로 태어난 버전은 1999년 파리 초연 이후 대중과 평단에게 호평받으며 새로운 〈신데렐라〉를 창조해 냈다. 요정 대신 관능미 가득한 죽은 생모의 등장, 맨발에 금가루를 묻힌 채 춤추는 신데렐라는 우리가 알던 고전발레와는 또 다른 매력을 선사했다.

전설의 말러리안, 성남에 오다

길버트 카플란의 말러 교향곡 2번 '부활' | 10.15 | ⇨

2005년 개관 페스티벌 최고의 화제는 지휘자 길버트 카플란의 첫 내한이었다. 경제지 발행인이자 금융인으로 말러에 탐닉하던 애호가에서, 결국 지휘자로 빈 필하모닉과 음반까지 녹음한 '성공한 덕후'. 당시 세계 50여 개 오케스트라를 무려 100여 회에 걸쳐 지휘한 그의 레퍼토리는 단 하나, 말러 교향곡 2번 '부활'이었다. KBS교향악단과 함께한 성남 공연에서도 카플란은 직접 프리콘서트 레처를 진행하며 진정한 말러리안의 모습을 보여 주었다.



춤으로 하나 된 성남

성남국제무용제 | 9.5~9.10 | ↓

2006~09년 총 3회에 걸쳐 선보인 성남국제무용제는 국내외 유수의 무용단들이 펼치는 공연, 젊은 안무가들의 실험적인 공연, 친근하고 대중적인 공연과 시민참여 프로그램으로 꾸민 무용축제다. '환경과 춤'이라는 주제로 열린 2006년 제1회 무용제, 2007년 제2회 무용제 이후 격년으로 변경되어 2009년 제3회 무용제가 개최되었다. 성남아트센터 각 공연장과 춤의 광장, 빛의 계단뿐만 아니라 중앙공원과 울동공원, 탄천 그리고 성남의 대표 랜드마크인 남한산성과 모란시장까지 축제의 무대가 되어 시민과 하나 되는 노력을 기울였다.

2006





성남의 아침은 밤보다 진지하다

마티네 콘서트 | ⇐

개관 이듬해인 2006년부터 성남아트센터의 목요일 오전을 책임져 온 마티네 콘서트. 오전 콘서트는 소품이나 악장 발체 등 가벼운 레퍼토리 위주로 진행된다는 선입관을 배제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과 국내 정상급 연주자들의 협연으로 성남 마티네만의 독보적인 완성도를 발전시켰다. 지휘자 금난새, 음악평론가 장일범, 성악가 김동규와 카이, 배우 김석훈까지 풍부한 예술적 역량과 전달력을 갖춘 아티스트들이 사회자로 함께했으며, 2022년부터는 피아니스트 김태형이 목요일 아침을 책임지고 있다.

소문으로만 듣던 강수진의 대표작

슈투트가르트발레단 <말괄량이 길들이기>

10.14~10.15 | ⇓

발레리나 강수진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은 안무가 존 크랑코의 명작 <말괄량이 길들이기> 한국 초연으로 성남아트센터 개관 1주년 축하무대를 찾았다. 그동안 비극 연기로 정평을 얻어 온 강수진의 첫 희극 도전으로, 강수진 역시 자신의 캐릭터와 결과물에 대해 만족감을 표했을 만큼 성공적인 변신을 보여 준 작품이다. 우스꽝스러운 표정으로 주먹질과 발길질을 일삼는 알가닥 카테리나를 사랑스럽게 소화해 낸 강수진의 표현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지휘자 장한나의 탄생

제1회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축제 | 5.22~5.27 | ⇓

성남아트센터는 개관 초기부터 청소년 음악교육을 위한 굵직한 프로젝트를 추진했다. 그중 제1회 성남국제청소년관현악축제는 첼리스트 장한나의 지휘자 데뷔로 화제를 모았던 무대다. 장한나는 이 자리에서 한·중·독 3개국 청소년들로 구성된 연합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며 차세대 마에스트라의 탄생을 알렸다. 장한나의 성공적인 지휘자 데뷔 무대를 펼쳤던 성남아트센터는 이를 일회성 이벤트로 끝내지 않고, '음악이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모토 아래 <앰슬루트 클래식>으로 발전시키며 한국 클래식 음악계에 새로운 방향을 제시했다.



2007

제작극장의 무한한 가능성을 엿보다

오페라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 | 10.11~10.14 | ⇐

개관 이후 오페라 <파우스트> <마술피리> 등 수준 높은 자체제작 프로덕션을 선보인 성남아트센터는 2007년 리하르트 슈트라우스의 <낙소스 섬의 아리아드네>를 국내 초연으로 무대에 올렸다. 그리스 출신 여성 지휘자 리사 크산토폴리와 TIMF 앙상블, 현대적인 연출력의 독일 출신 연출가 브루노 베르거고르스, 정상의 성악가들이 19세기 낭만 오페라와는 또 다른 매력을 전해 주었다. 2005년 <파우스트>에 이어 또다시 'KBS가 선정한 그해의 공연'에 등극하며 다시 한번 제작극장으로서의 기획력을 인정받는 계기가 된 작품이다.

SEONGNAM SA ARTS CENTER MONTHLY GUIDE

Calendar

Map

Programs

성남아트센터 가이드 | 2025년 3월

다채로운 음악 콘서트와 전시회부터 드라마틱한 춤과 연극까지,

성남아트센터가 준비한 다양한 예술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새로운 감동으로 특별한 순간을 만들어 보세요.

2025.03

㉔ 오페라하우스 ㉔ 콘서트홀 ㉔ 앙상블시어터

㉔ 성남아트리움 ㉔ 큐브플라자 미디어홀

■ 성남문화재단 기획

Monday	Tuesday	Wednesday	Thursday	Friday	Saturday	Sunday
					1	2
					㉔ 이온미 라이브투어 'MOVE ON'(18:00) ㉔ MDOP 정기연주회(17:00) ㉔ 어린이 마술쇼(11:00, 14:00, 16:30)	㉔ 노바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3	4	5	6	7	8	9
				■㉔ 연극만원 1 <뜨거운 여름>(19:30)	㉔ WEE SHOW #1 <너드커넥션xONEWE>성남(19:00) ■㉔ 연극만원 1 <뜨거운 여름>(14:00, 18:00) ㉔ 뮤지컬 <타키포오>(11:00, 14:00, 16:00)	■㉔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틀(17:00) ■㉔ 연극만원 1 <뜨거운 여름>(14:00) ㉔ 뮤지컬 <타키포오>(11:00, 14:00)
10	11	12	13	14	15	16
			㉔ 성남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다시 봄날>(19:30)	■㉔ 호폐쉬 섹터의 <꿈의 극장>(19:30) ㉔ 성남시립교향악단 정기연주회(19:30) ㉔ 소프라노 이지현 독창회(19:30)	■㉔ 호폐쉬 섹터의 <꿈의 극장>(15:00) ㉔ 스프링 페스티벌 오르페오 앙상블 콘서트 '대항해 시대의 바로크 음악'(17:00) ㉔ 광운대 오케스트라 Da KAPO(17:00)	㉔ 신윤원 윤혜경 듀오 리사이틀(18:00)
17	18	19	20	21	22	23
		㉔ 한독클래식음악협회 초청 피아노 앙상블 콘서트 'Spring Fantasy'(19:30)	■㉔ 마티네 콘서트(11:00) ㉔ 카메라타 정기연주회(19:00)		㉔ 천상의 수다쟁이들 정영주&유엔젤보이스의 봄날 이야기(19:30) ㉔ 뮤지컬 <드라랄라 치과>(11:00, 14:00, 16:30) ㉔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11:00, 14:00, 16:30)	㉔ SA청소년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19:30) ㉔ 뮤지컬 <드라랄라 치과>(11:00, 14:00) ㉔ 가족뮤지컬 <꼬마버스 타요>(11:00, 14:00, 16:30)
24	25	26	27	28	29	30
		㉔ 성남시립교향악단 '금난새의 봄날의 오페라'(19:30) ㉔ 나경운 피아노 독주회 '연말파티'(19:30)	㉔ viva musica 정기연주회(19:30)	㉔ 박승혜 피아노 리사이틀(19:30)	㉔ 3월의 봄: 정훈희x송창식 with 함춘호x박승화(18:30) ㉔ 성남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정기연주회(17:00) ㉔ 디즈니 콘서트(15:00) ㉔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친구들의 드림콘서트>(11:00, 14:00, 16:30)	㉔ 이혜선 클라리넷 독주회(15:00) ㉔ 가족뮤지컬 <뽀로로와 친구들의 드림콘서트>(11:00, 14:00, 16:30)
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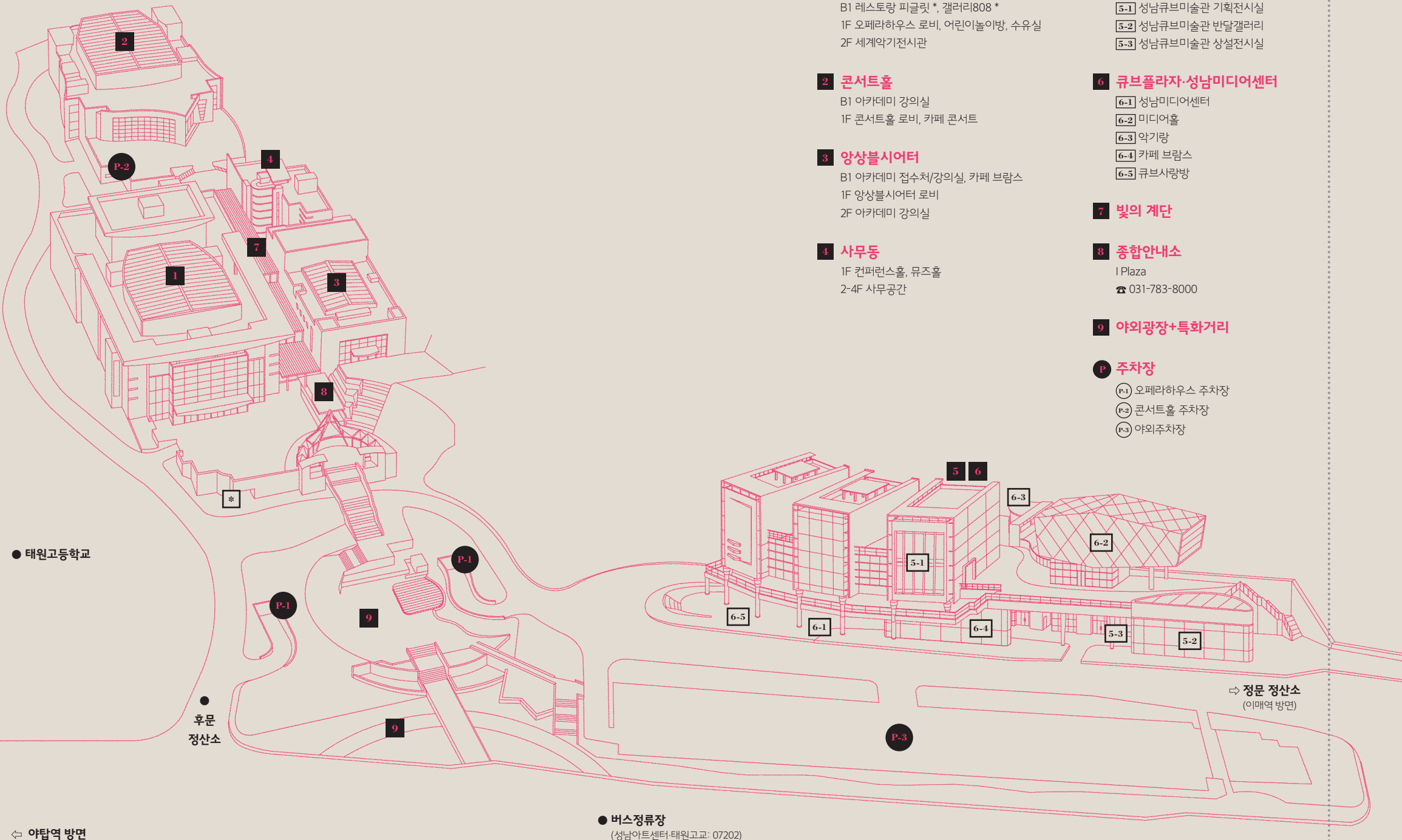
위 일정은 2025년 2월 25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자세한 최신 정보는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www.snart.or.kr에서 확인해 주세요.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		
■ 겨울특별기획전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24년 12월 13일~3월 16일	기획전시실
■ 2025 성남작가조명전 1 <de:BOUNDARY>	2월 21일~4월 27일	반달갤러리
■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 <비워지고, 채워지는>	2월 28일~12월 21일	상설전시실
■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	3월 14일~4월 23일	갤러리808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갤러리808	
해무	3월 9일~3월 16일
중국 공필화전: 봄의 정원	3월 9일~3월 16일
성남조각협회 정기전	3월 22일~3월 29일

* 전시 관람시간: 10:00~18:00 (월요일 휴관)



1 오페라하우스

B1 레스토랑 피글릿 *, 갤러리808 *
1F 오페라하우스 로비, 어린이놀이방, 수유실
2F 세계악기전시관

2 콘서트홀

B1 아카데미 강의실
1F 콘서트홀 로비, 카페 콘서트

3 앙상블시어터

B1 아카데미 접수처/강의실, 카페 브람스
1F 앙상블시어터 로비
2F 아카데미 강의실

4 사무동

1F 컨퍼런스홀, 뮤즈홀
2-4F 사무공간

5 성남큐브미술관

5-1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5-2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5-3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6 큐브플라자·성남미디어센터

6-1 성남미디어센터
6-2 미디어홀
6-3 악기랑
6-4 카페 브람스
6-5 큐브사랑방

7 빛의 계단

8 종합안내소

I Plaza
☎ 031-783-8000

9 야외광장+특화거리

P 주차장

P-1 오페라하우스 주차장
P-2 콘서트홀 주차장
P-3 야외주차장

3rd SEONGNAM ATRIUM CLASSIC SERIES

성남아트리움 클래식 시리즈

백건우와 모차르트
4. 10. THU 7:30PM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
5. 15. THU 7:30PM

작곡가 시리즈 <모차르트 II>
6. 28. SAT 5: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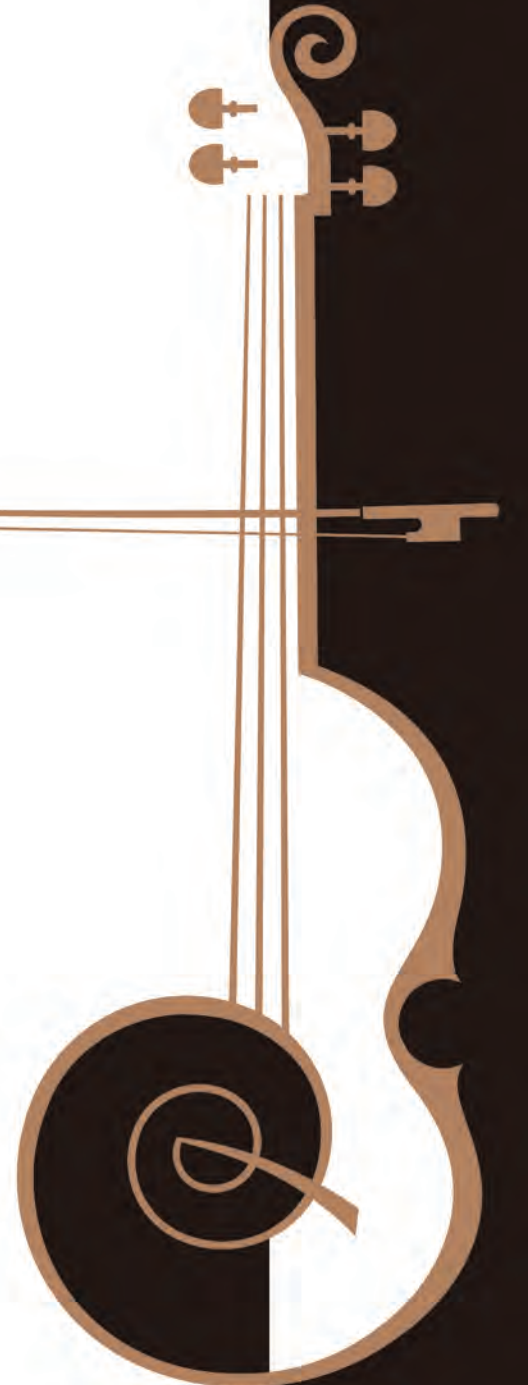
손열음 & 고임홍프로젝트
7. 6. SUN 3:00P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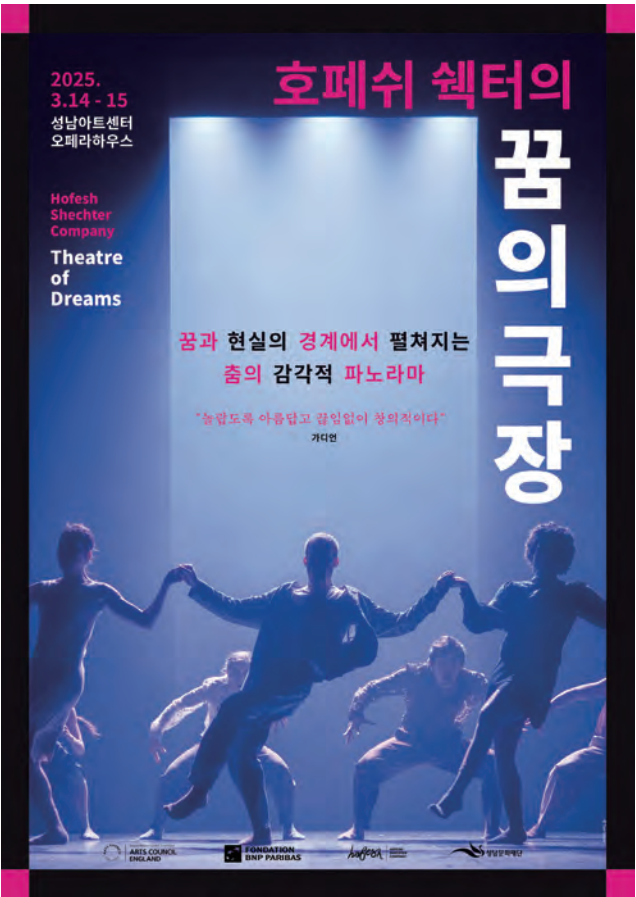
필하모닉 스트링 콰텟 베를린 내한공연
9. 20. SAT 5:00PM

신창용 피아노 리사이틀
11. 20. THU 7:30PM

리처드 용재 오닐의 <선물>
12. 20. SAT 5:00PM

2025. 4. 10 - 12. 20
성남아트리움 대극장





호페쉬 섹터의 <꿈의 극장>

세계 정상의 현대무용 안무가 호페쉬 섹터의 신작 <꿈의 극장>이 3월 14~15일 성남아트센터에서 국내 초연으로 선보인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문화 올림픽아드의 일환으로 성남아트센터를 포함해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등 유럽과 북미 주요 극장들이 공동제작에 참여해 탄생한 화제작이다. 6월 27일 파리에서 세계 초연, 이후 런던 새들러스 웰스 등 유럽 주요 무대에서 극찬받은 이 작품을 드디어 성남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창의적이고 강력한 에너지로 꿈과 현실의 경계를 넘나드는 이 작품을 통해 이전에 만나지 못한 색다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오페라하우스
일시
3월 14일(금) 오후 7시 30분,
15일(토) 오후 3시
티켓
R석 70,000원, S석 50,000원
문의
031-783-8000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틀

독일 가곡의 탁월한 해석자,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가 첫 내한 리사이틀을 갖는다. 클래식 매거진 <그라모폰>이 '수십 년 동안 구축한 단일한 마음으로 믿을 수 없을 만큼 상상력이 풍부한 세계를 창조했다'고 찬사를 보낸 슈만을 노래하는 이번 성남아트센터 리사이틀은 리트의 팬이라면 놓칠 수 없는 시간이 될 것이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콘서트홀
일시 3월 9일(일) 오후 5시
티켓 R석 80,000원, S석 60,000원
문의 031-783-8000



연극만원 1 <뜨거운 여름>

평단과 대중에게서 인정받은 연극을 단돈 1만 원에 만날 수 있는 연극만원滿員 시리즈. 올해에는 삶의 여정 속에서 서로를 비춰 주는 동반자의 존재와 그들이 만들어 가는 희망의 빛을 담은 연극 다섯 편을 소개한다. 첫 작품으로는 첫사랑의 부고를 들은 배우 재희가 추억을 회상하며 첫사랑의 흔적을 찾아가는 과정을 담은 <뜨거운 여름>이 3월 7~9일 선보인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앙상블시어터
일시 3월 7일(금)~3월 9일(일)
오후 7시 30분(금), 오후 2시·6시(주말)
티켓 전석 10,000원
문의 031-783-8000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Viva Frida Kahlo’

멕시코를 대표하는 여성 화가 프리다 칼로의 대표작들을 레플리카로 만날 수 있는 <프리다 칼로 레플리카전: ‘Viva Frida Kahlo’>가 3월 16일까지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 중이다. 칼로가 평생에 걸쳐 남긴 80여 점의 기록들을 만날 수 있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기획전시실
일시 ~3월 16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성인 6,000원, 청소년 5,000원
문의 031-783-814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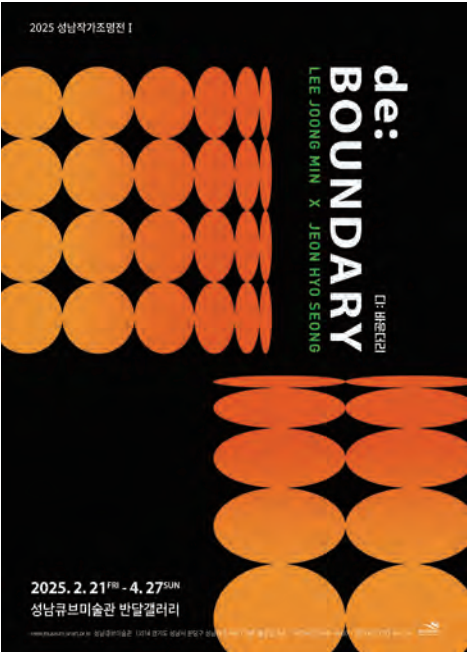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

<베워지고, 채워지는>

2025 소장품주제기획전은 지난해 성남큐브미술관이 수집한 소장품을 엄선, 하나의 주제로 엮은 주제 기획전이다. 임남진·김민호·김형욱·강승혜·박경·임철민·신서운·지희·김·김여운·박근주·김래현 작가까지, 다채로운 창작세계를 지닌 작가들의 시선을 통해 현실과 비현실의 경계를 탐구하고 삶을 재조명한 작업을 선보인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상설전시실
일시 2월 28일(금)~12월 21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2025 성남작가조명전 I

<다:바운더리>

성남작가조명전은 지역의 역량 있는 청년·중견 작가의 작품세계를 집중 조명하고, 작가의 예술관이 세상과 적극 소통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응원하고자 기획된 전시다. 올해 성남작가조명전의 첫 번째 전시는 청년작가 이종민, 전호성의 <다:바운더리>로, 기술과 예술의 상호작용이 빚어내는 경계 너머의 가능성을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장소 성남큐브미술관 반달갤러리
일시 2월 21일(금)~4월 27일(일)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2025 성남장애예술인그룹전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

<This Ability: 또 다른 능력>은 장애예술인의 독창적인 미적 언어와 예술적 역량으로 구축한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전시다. 다양한 연령층을 아우르는 참여 작가 10인(권순욱·김태영·박규현·송진현·윤동규·이도원·이마로·이찬영·최봄이·황진호)이 저마다의 고유한 표현 방식과 감각을 담아낸 작품 50여 점을 선보인다.

장소 성남아트센터 갤러리808
일시 3월 14일(금)~4월 23일(수)
오전 10시~오후 6시(매주 월요일 쉼)
티켓 무료 관람
문의 031-783-8142~9

2025년 1학기 성남아트센터

감상인문 아카데미

오페라 살롱 황지원

미술애호가 및 콜렉터 과정_9회 김종현

클래식 포레스트 황장원

철학과 미학으로 해석해 가는 서양미술사 윤우학

세계 미술관 산책 이은화

즐거운 음악 감상 김상현

아트 앤 뮤직 큐레이션 최정주

미술사에 빛나는 여성 미술가들 이윤희

오페라 아리아 아모레 강성곤

접수 기간

온라인 접수 2025. 1. 21.(화) 10:00~

현장 접수 2025. 1. 23.(목) 10:00~

강의 기간

2025. 3. 4.(화) ~ 6. 13.(금) 13회 과정
(강좌별 첫 주 무료 오픈 특강)

강의 장소

큐브플라자 3층 미디어홀

수강료

180,000원

문의

성남아트센터 아카데미 031)783-8156
(평일 10:00~17:00, 주말 및 공휴일 제외)

자세한 사항은 성남아트센터 홈페이지
(www.snart.or.kr) 아카데미 참고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성남아트센터에 대한 후원 활동을 통해 기관의 성장을 돕고, 이를 통해 더 많은 이들이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2006년 10월 발족했습니다. 이를 위해 성남아트센터의 목적사업을 지원하는 중장기 발전기금 조성과 함께,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자체 진행하며 아름다운 동행을 이어 가고 있습니다.

법인회원

온하수회원

박지향 (주)유엔젤 부회장 /
(재)유엔젤보이스 이사장

달무리회원

신현규/김복선

탄천회원

강영귀/김연경 이노엘 대표
김진명/심정자 분당 에치과병원 원장
서창우/석남연 한국파파존스(주) 회장 /
동양언우보험대리점 대표
손경호/이동순 (주)경동 대표이사 회장
손일선/김상일 태평염전 회장 / 태평염전 사장
안봉혁/여운경 유씨티코리아(주) 대표이사 회장
이완근/홍은희 (주)산성이엔지 회장
이재환/한정의 (주)워즈코리아 설립자 / 명예CEO
정대혁/김대원 나우(주) 대표이사 회장

철죽회원

김부경/김모민 동서메디케어(주) 대표이사 /
김상한/오다영 동서메디케어(주) 이사
박동순/강송희 아람휴비스(주) CEO
변봉덕/이매연 (주)코맥스 대표이사 회장
우문식/조남숙 에스엔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이상우/강지선 (주)인베이드투자자문 사장 /
부동산라이프 대표
이서규/황해숙 (주)팍셀플러스 대표이사
(사)성남산업단지관리공단
성남상공회의소
탄천문화포럼 100인회

개인회원

무지개회원

김경자/박성희 꼬모아트웍스 이사

탄천회원

박철/하정진 아이파트너(주) 대표이사
여영동/이옥자 전 (주)씨너스 회장
故회계승/김순자 (주)반포산업 대표이사

철죽회원

강정원/정병태 (사)한국미술협회 상임고문,
프랑스 작가협회 회화분과위원
강효주/이동연 필립강갤러리 대표,
한국문화재단연구소 소장

김길복/이상숙 한국수도경영연구소장, 공인회계사
김동술/민인선 (주)종합건축사사무소 담 대표이사 /
(주)에디디자인 이사

김명자/이승오 산후조리원 라크렘 대표

김문기/김인숙 (주)금화 대표이사

김연태/이주숙 (주)비스타글로벌 대표

김영수/원종순 전 문화체육부 장관,
한국청소년문화연구소 이사장

김중현/정승희 (주)특수건설 대표이사 회장

김진환/이화용 법무법인 새한양 대표변호사,
前 서울지검장

김태호/김경자 전 농협중앙회 이매동지점장

남궁원/김순미 남송미술관 관장 / 예원유치원장

남선우/정정섭 국제로타리 3600지구 총 총재

마희자/조득환 서진공방 대표 /
(주)조영실업 대표이사

박미경/강대식 중원구 보건소 약사 / (주)평화기업 이사

박지영/윤영민 로즈피부와 분당점 원장 /
로즈피부와 청담점 원장

백종훈/지용애 한국디지털콘크리트(주) CEO /
송파중학교 교사

서정림 전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손의명/손희자 치과의사 / 한국화가

故송자/탁순희 전 대교 이사장

신동화 경기일보 상무

신상진 신명엔지니어링 대표이사 회장

오풍영/이승희 (주)인흥 대표이사 /
평택대학교 실용음악과 교수

유성희/유성운 (주)이글프로세스 콘트롤스 대표이사

윤영상/박인영 성남정자초등학교 교사 /
낙원중학교 교장

이연옥/조상수 (사)오연문화예술원 이사장

이경화/이정우 전 한국역사문화연구원장,
국사편찬위원회

이은화/정인희 (주)언어문화원 대표이사

이임수/이화자 김 장 법률사무소 변호사 / 서예가

故이정식/고옥주 전 (주)서울문화사 대표이사 사장

故이종덕/김영주 전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창립자

이지은/김순건 음악인 / 하림상사 대표

이호선/김영순 세일종합기술공사 대표이사 /
(사)한국발레협회 부회장

임상규/정효정 (주)대일소재 상무 / 약사

임인선/채인호 대림대학교 스포츠재활학부 교수 /
분당 서울대학교 병원 심장내과 교수

임현주/김운선 AMK

장세영/김준식 한화엔엑스엠 대표이사 /
잡코리아 CTO

장형환/임경희 N스페이스 회장 / N 갤러리 관장

전명자/김정길 서양화가 / JKIM & Co. INC 대표

정성조/심윤경 (주)패션아일랜드 대표 /
D&M Space 대표

정승립/한정복 세일기공(주) 대표

정용석/이승설 성남FM방송국 대표

정은경/박민걸 모란세로음악국 대표 /
명당한의원 한의사

정은기/박은숙 전 국립서울병원원장 / 서양화가

정인택/유경희 신한라이프 명예부사장

조남주/이규철 미술단체 <線과 色> 전 명예회장

최병주/박인수 세무법인 청담 대표,
(재)성남이로문화재단 이사장

최병오/박종길 패션그룹형지 회장

최은희/연형모 안양예술고등학교 이사장

한병무/최정자 (주)삼화 F&F 회장

허용무/구은희 (주)기림산업 대표이사 회장

故하철/홍예자 전 상이재학 회장 / 수필가

황광석/조영순 (주)케이씨대표

이매회원

김선애 (재)사랑정원 이사장
박영일 (주)글로벌미트플랫폼 GMP
대표이사
서미라 21세기 미금의원 원장
윤향남 화가
전동욱 (주)제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
사무소 부사장
주재근 정효문화재단 대표

까지회원

김상수 (주)UBE모터스 고문
김성민 운 중농원길비 대표
김홍태 하팅코리아(주) 대표이사
목영애 단국대학교 문화예술학과 교수,
(사)대한문화예술진흥협회
이사장

백선정 (사)코리아뮤직소사이어티
대표이사
오미주 성악가

우주호 (주)리크루즈 여행 대표이사
이기영 (주)한술교육 대표이사
이윤이 HCS 대표

정희재 지휘자
조현우 변호사
최진욱

명예회원

박명숙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대한민국예술원 회원
신선희 前 (재)성남문화재단 대표이사,
무대미술가

성남아트센터 후원회 임원진

회장 강효주 부회장 황광석, 김상일
이사 김연태, 박동순, 서정림, 정대혁,
최은희, 신상진, 윤영상
감사 김길복, 김문기

후원회 사무국

전화 031-783-8033 이메일 mecenat@snart.or.kr
성남아트센터 후원회는 문화예술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든 분께 열려 있습니다.
언제든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을 중심으로 환영합니다.

후원회 가입 안내 바로가기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특화거리 피크닉부터 인생샷까지 다 되는 곳을 찾는다면

성남아트센터를 찾아오시는 모두에게 숨은 꿀스팟을 소개합니다! 지난해 가을 새로 선보인 문화예술 특화거리인데요, 숨어 있다기엔... 성남아트센터 버스정류장에 내리자마자 활짝 펼쳐져 있는 공간이지만, 많은 분들이 즐기시기를 바라며 알려 드려요.

글 강준구 성남문화재단 소통전략부



성남아트센터 야외광장과 이어진 특화거리는 푸른 잔디밭과 멋진 야외 조각이 어우러진, 성남아트센터의 얼굴이 되어 주는 공간입니다. 봄에는 따스한 햇살, 폭신하게 자라난 잔디를 느끼며 간단한 피크닉을 즐기기에 안성맞춤이고, 무더운 여름엔 언제나 특화거리 그늘 쉼터에서 쉬어갈 수 있죠. 가을의 특화거리는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한 야외무대로 변신합니다. 무용 퍼포먼스가 펼쳐지기도 하고, 온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야외극장이 되기도 해요. 겨울이 오면 잔디는 잠시 겨울잠을 자겠지만, 하얀 눈이 소복이 쌓인 풍경을 즐길 수 있답니다.

밤이 되면 곳곳의 예쁜 조명이 잔디를 밝히며 로맨틱한 분위기를 만들어 냅니다. 꼭 공연이나 전시를 보러 오지 않더라도, 계절마다 아름다운 특화거리에서 언제나 잠깐의 쉼을 즐기고 오페라하우스를 배경으로 인생샷을 남겨 보는 건 어떨까요?

S N A R T

성남아트센터 2025 시즌 프로그램

BRAND SERIES

2025 마티네 콘서트 <아름답고 푸른 도나우>
2025 Matinée Concert <An der schönen blauen Donau>
3월 ~ 12월 (매월 셋째주 목요일 11AM) | 콘서트홀
사회: 피아니스트 김태형

2025 연극 만원(滿員) <서로의 빛>
2025 Play Man-Won <Becoming Each Other's Light>
양상블시어터
뜨거운 여름 3.7(금) ~ 3.9(일)
바스커빌 : 설록홀즈 미스터리 4.11(금) ~ 4.13(일)
톡톡 5.16(금) ~ 5.18(일)
고요한, 미행 6.27(금) ~ 6.29(일)
수상한 집주인 8.22(금) ~ 8.24(일)

2025 앙트레 콘서트
2025 Entrée Concert
M발레단 <돈키호테> 10.25(토) | 오페라하우스
플라잉 심포니 - 키즈 콘서트 12.13(토) | 콘서트홀
메리메리 크리스마스 콘서트 12.24(수) | 콘서트홀

2025 야외 뮤직 페스티벌
2025 Music Festival
5월 ~ 9월 중(무료) | 중앙공원 야외공연장 등
주말 도심 속에서 펼쳐지는 야외 음악 축제
'파크 콘서트', '피크닉 콘서트',
그리고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뮤직 페스타'

SEASON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리사이틀
Baritone Christian Gerhaher Recital
3.9(일) 5PM | 콘서트홀
바리톤 크리스티안 게르하허, 피아노 게를트 후버

호페쉬 섹터 <꿈의 극장>
Theatre of Dreams
3.14(금) 7:30PM, 3.15(토) 3PM | 오페라하우스
호페쉬 섹터 컴퍼니

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Bamberger Symphoniker
5.31(토) 5PM | 콘서트홀
아쿠프 흐루샤/밤베르크 심포니 오케스트라(협연: 바이올린 김봄소리)

조성진 피아노 리사이틀
Seong-Jin Cho Piano Recital
6.15(일) 3PM | 콘서트홀

조수미 & 위너스
Sumi Jo & Winners
6.21(토) 5PM | 오페라하우스
소프라노 조수미, 제1회 조수미 국제 성악 콩쿠르 수상자

<발레 스타즈>
<Ballet Stars>
7.26(토)·7.27(일) 5PM | 오페라하우스
예술감독: 김용걸, 지휘: 김광현, 연주: 코리아쿰오케스트라

반클리프 아펠 댄스 리플렉션
드레스덴 프랑크푸르트 댄스 컴퍼니 '더블빌'
: 윌리엄 포사이드 신작(2025) & LISA
Dance Reflections by Van Cleef & Arpels
Dresden Frankfurt Dance Company 'Double Bill'
: William Forsythe(2025) & LISA
11.8(토)·11.9(일) | 오페라하우스

연극 <러브 비욘드>
<Love Beyond>
11.28(금) ~ 11.30(일) | 양상블시어터
작가: 라메쉬 메이아판, 연출: 매튜 랜튼

2025